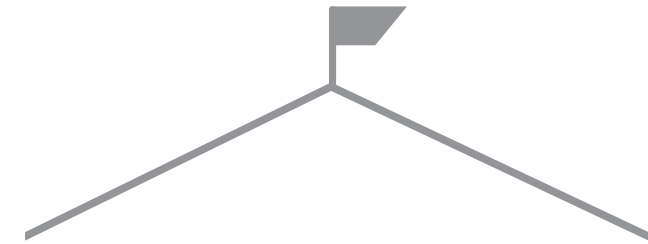


은평, 노오, 마을하다 2020

은평, 노오, 마음하다 리 2020



CONTENTS

은평, 마을하다 2020

마을, 2020년을 함께하다



- 08 2020년 학교 지원
- 11 사업설명회
- 12 마을 강사 교육
- 14 콘텐츠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마을강사 및 교사 집담회
- 14 온라인 교육자원 박람회

마을, 학교와 함께하다



- 18 문화예술체육과 함께하다
- 44 진로체험활동과 함께하다
- 62 창의과학융합과 함께하다
- 72 인성심리정서와 함께하다
- 80 마을탐방과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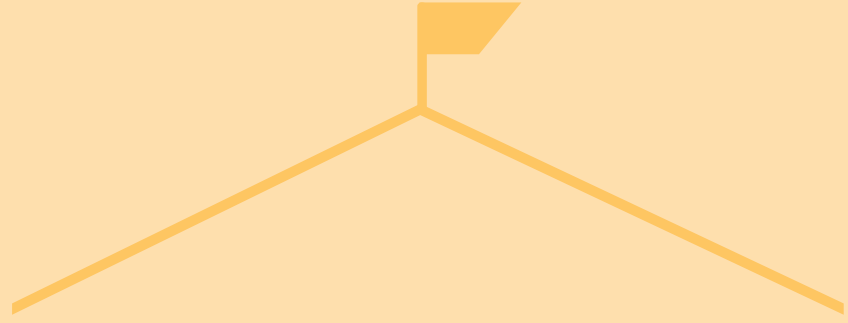
마을, 2021년을 꿈꾸다



- 84 응원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 86 고맙습니다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 90 2021년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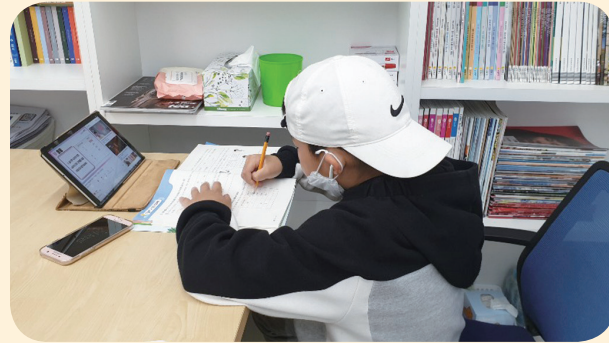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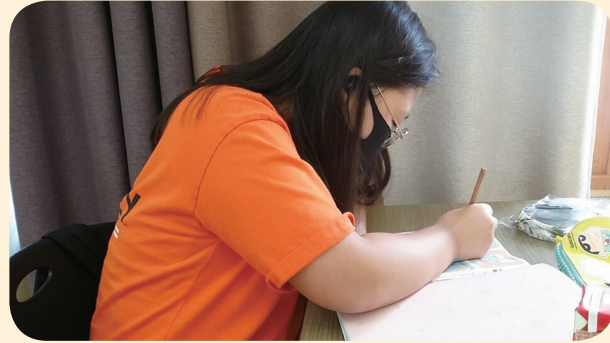
마을하다 [마을: 하다]

은평 마을에서는 마을, 학교, 교육 공동체를 통해 무엇이든 가능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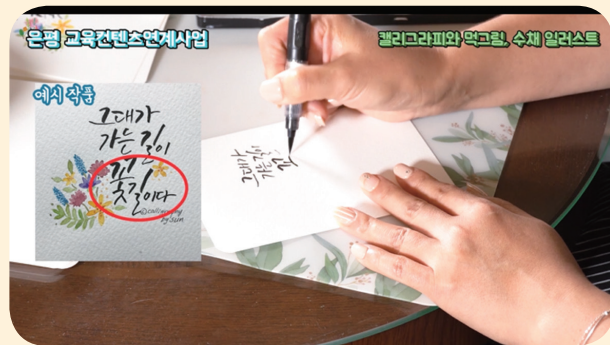


마을,
2020년을
함께하다

온라인 원격 수업 지원



온라인 영상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교육



마을강사 및 교사 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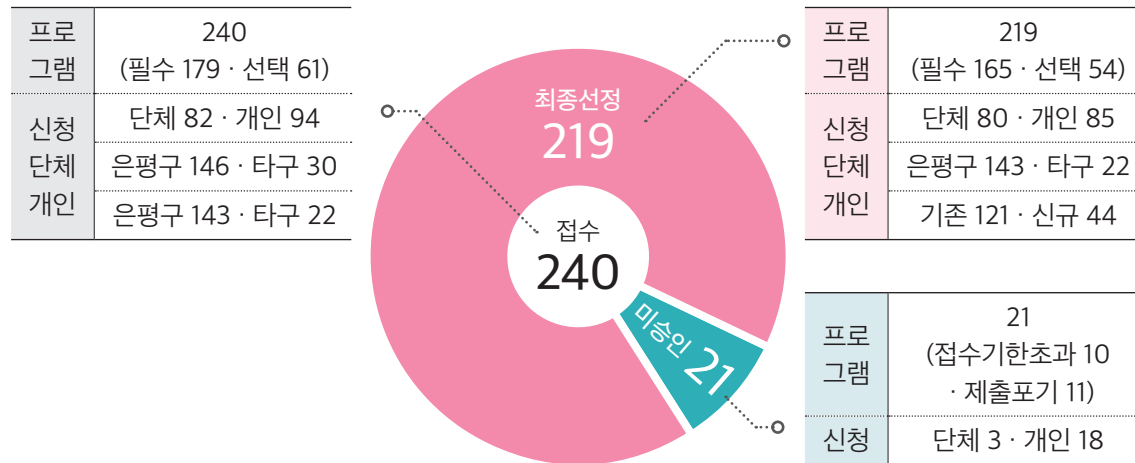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자원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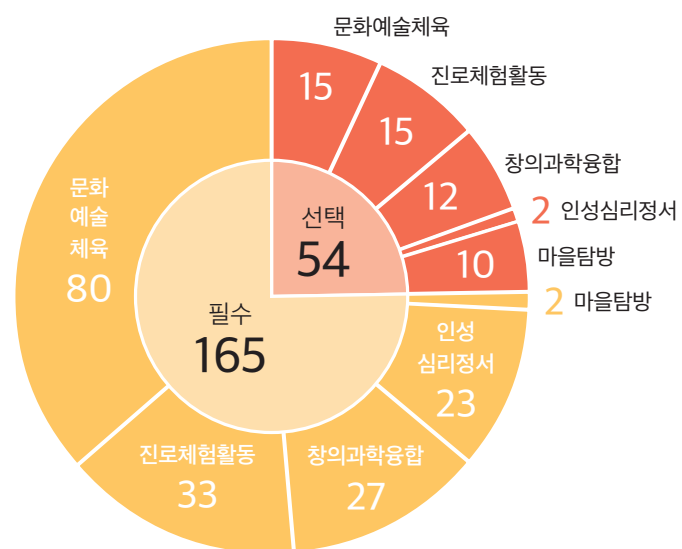
· 2020년 학교 지원 ·

67개교 지원

· 학교 지원 공모 현황 - 신청 및 선정 결과(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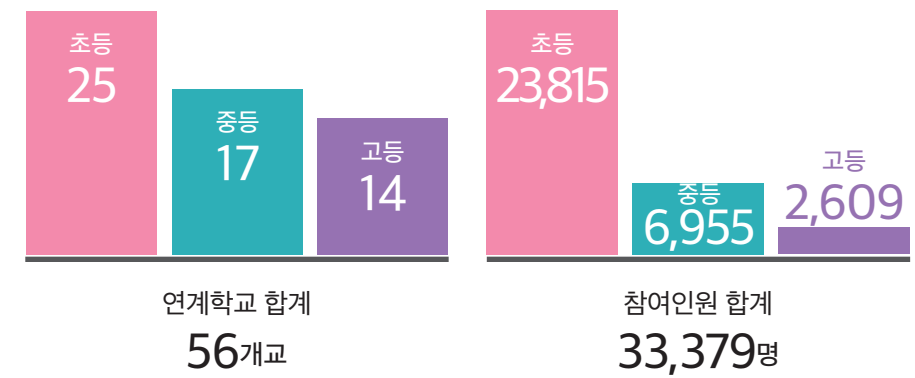


· 학교 지원 공모 현황 - 필수/선택 프로그램 세부 사항(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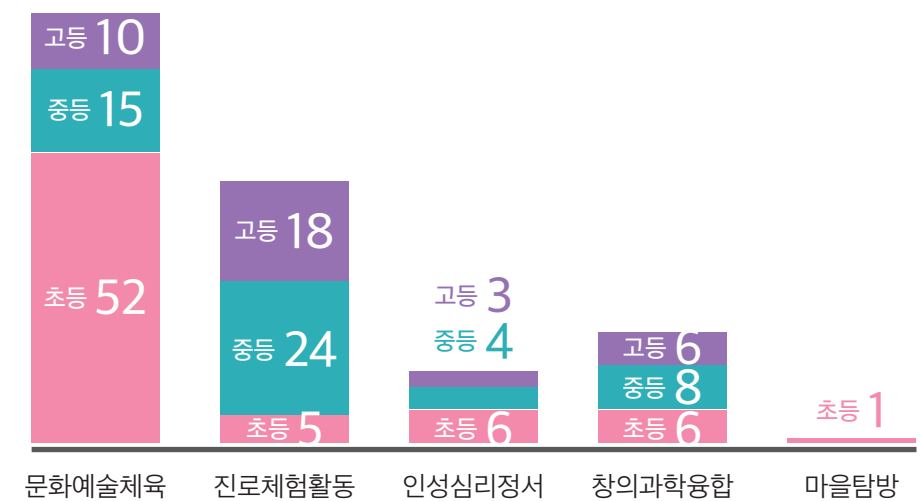


학교 기호		
가	북한산초	2
나	연천초	8
다	충암초	14
라	은명초	0
마	은빛초	14
바	연천중	7
사	진관고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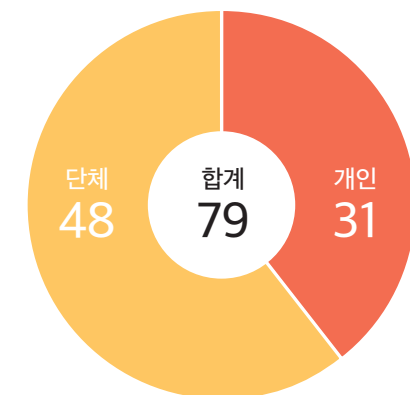
· 학교 연계 및 학생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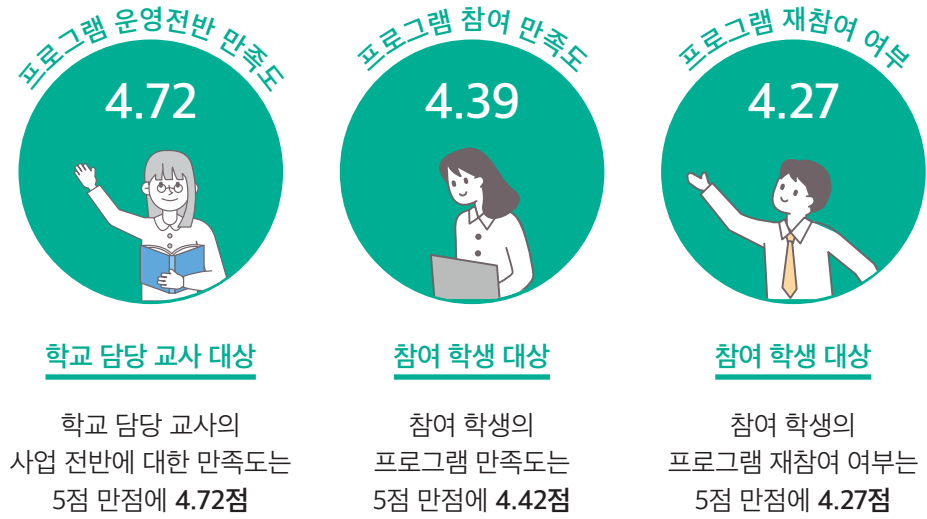
· 사업 영역별 프로그램 연계 현황(프로그램 복수 연계)



· 프로그램 단체/개인 연계 현황 (165개 중 79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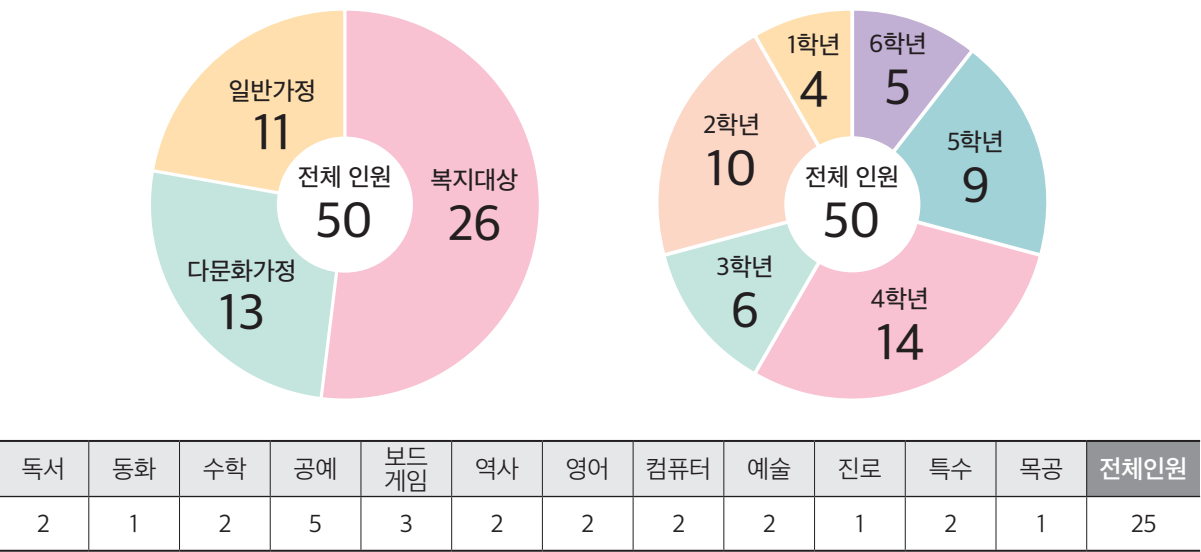


· 20년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온라인 원격 수업 지원

- 원격 수업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모집하여 마을 강사(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선정 강사)와 소규모로 학습 지원
- 8개 기관, 멘토 25명(마을 강사), 10개 학교, 50명 참여



- 학습 환경 확인, 정부 생활 방역 지침 준수하여 진행
 - 인터넷 와이파이존 확보, 교실 환경 확인
 - 각 기관 담당 실무자 지정, 기기 보관 여부 확인
 - 온라인 원격 수업 중 관찰된 교육복지 대상 발굴(수업 중 관찰하여 일지 기록)
 - 간단 식사 제공

온라인 영상 제작 지원

- 학교 개학 지연과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마을 강사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하도록 지원함
- 제작 단체 선정 심사를 거쳐 2개 단체를 선정(협동조합 청청, 에듀통협동조합)
- 총 7개 단체/개인 온라인 수업 영상 제작

	단체/개인명		프로그램명
1	단체	예지원	한지공예품 만들기
2	단체	카페원코퍼레이션	다양한 카페메뉴 만들기 및 바리스타 체험활동
3	단체	교육애펙스협동조합	은평의 보물찾기
4	개인	김선	캘리그래피와 먹그림,수채 일러스트
5	개인	박수인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는 행복놀이
6	개인	신윤경	3D 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 만들기
7	개인	최동순	국악민요

-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 수업 영상 결과물 업로드

· 사업 설명회 ·

	20. 사업설명회 (선정 강사 대상)	21. 온라인 사업설명회 (지역 주민, 마을 강사)	21. 사업설명회 (학교 대상)
일시	4/1(수)~2(목)	9/21~	12/28~
내용	①서면 안내자료 배포 ②전화 상담 ③원하는 단체와 대면 상담 (8개 참여)	①21년 사업 안내 영상 제작 ②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업로드 ③관내 옥외현수막을 통해 안내	①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 자료집에 안내 ②21년 자료집 제작하여 29일부터 학교로 배포(안내 공문 배포 완료)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설명회를 지양하고, 온라인과 서면으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하여 1:1 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함

• 마을 강사 교육 •

마을 강사 교육 - 학교 안전 필수 교육

- 학교 연계된 마을 강사 전체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실시함
- 4/20(월)~6/19(금)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 **교육 내용** 학교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 **교육 기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시	교육명	내용	교육기관 사이트
4/20(월) ~5/18(월)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의 정의-15분 • 심폐소생술 익히기-20분 • 심폐소생술 익히기(영아·소아)-21분 • 심폐소생술 익히기(성인)-13분 • 응급처치법-14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5/19(화) ~6/19(금)	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90분 • 성인지교육(양성평등)-90분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총 501명 수료(640명 신청 501명 수료)
-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220명,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 281명

마을 강사 교육 -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교육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부 지침 등에 의한 학교 수업 축소 및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신청한 마을 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 교육을 실시함
- 입문 교육 온라인 비대면 교육,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실시 : 170명 참여
- **교육 내용** :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교육(줌, 구글클래스, 저작권)
- **교육 기관** : 모두의 라이브 방송 협동조합

일시	교육명	내용	교육장소
7/29(수) 10:00~12:00	구글클래스교육	구글클래스 tool 사용법, 출결관리, 과제만들기, 평가 등	온라인 ZOOM
7/29(수) 13:00~15:30	ZOOM교육	ZOOM 계정만들기, 설치, 화면 및 사운드권한 제어, 화면공유, 소회의실 분반을 통한 조별모임 등	
7/31(금) 10:00~12:00	구글클래스교육	구글클래스 tool 사용법, 출결관리, 과제만들기, 평가 등	
7/31(금) 13:00~15:30	ZOOM교육	ZOOM 계정만들기, 설치, 화면 및 사운드권한 제어, 화면공유, 소회의실 분반을 통한 조별모임 등	
8/3(월) 13:00~15:00	저작권교육	저작권개념, 저작권의 종류, 무료 저작권 활용법 (폰트, 이미지, 영상, 아이콘, 음원 등)	
8/3(월) 16:00~18:00	실습 교육	ZOOM을 이용한방 개설 및 초대, 사용자 음성설정 전자칠판 사용, 화면공유, 블루스크린 활용, 배경화면 변경, 소회의실 개설, 수업시연	오프라인 소규모 1~5명 혁신파크
8/10(월) 10:00~12:00			
8/10(월) 13:30~15:30			
8/12(수) 10:00~12:00			
8/12(수) 13:30~15:30			
8/13(목) 10:00~12:00			
8/13(목) 13:30~15:30			
8/14(금) 10:00~12:00			
8/14(금) 13:30~15:30			
8/19(수) 10:00~12:00			

콘텐츠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 마을강사 및 교사 집담회 ·

with 코로나「학교와 마을 결합에 대한 평가 및 콘텐츠 발전방향」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콘텐츠의 경험 공유와 콘텐츠 발전 방향에 대한 대화의 장
- 주제 : with 코로나「학교와 마을 결합에 대한 평가 및 콘텐츠 발전방향」
- 발제 : 광미영(with 코로나 시대, 마을교사의 역할과 비전), 채희태(코로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교육의 기회)
- 6회 진행, 총 99명 참여

내용	교사간담회 (오프라인)	강사간담회1차 (온라인)	강사간담회2차 (온라인)	강사간담회3차 (온라인)	강사간담회4차 (온라인)	최종워크숍 (오프라인)
일시	8/13(목) 10:00~12:00	9/1(화) 10:00~12:00	9/1(화) 13:00~15:00	9/4(금) 10:00~12:00	9/4(금) 13:00~15:00	10/16(금) 16:00~18:00
참여 인원	25	16	15	15	16	11

· 온라인 교육자원 박람회 ·

- 21년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선정 프로그램 홍보 영상 제작 및 게시
-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게시

	센터 제작	개인 제작	총
단체	28	6	34
개인	21	4	25
총	49	10	59



마을 , 학교와 함께하다

• 서울구현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 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방송 댄스로 매년 수업을 나갔던 구현초등학교에 올해는 댄스스포츠로 수업을 나가게 되었다.

첫 시간에는 자이브를 준비했는데 빠른 템포인 자이브를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차차차와 룸바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짝을 지어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지 못해서 혼자 출수 있는 루틴을 준비하여 수업했다.

차차차, 룸바 리듬과 기본기를 충분히 연습한 후 루틴을 진행하였고 2학년 저학년 친구들이라 팔 동작을 최소화하고 스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댄스스포츠에서 중요한 기본스텝으로 루틴을 준비했는데 동작의 개수가 많은데도 거뜬히 잘 외우고 매시간 즐겁게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정말 기특했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지 않고 스스로 외워서 씩씩하게 발표하며 뿌듯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마지막 수업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1학년일 때 만났던 아이들을 올해 2학년이 되어 또 만나게 되어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면 수업 날, 내년에도 선생님을 또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아이들!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되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소고치며 춤추며 열쑥

단체/개인명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고 수업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품 위주보다는 장단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독과 안전에 수업보다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명 캘리그래피와 먹그림, 수채 일러스트

단체/개인명 김선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콘텐츠 수업 내용은 작년과 같아도 코로나 상황이 다 보니, 수업 준비 과정이 달랐다. 그동안 모듈별로 진행했던 수업을 개별적으로 개인 책상에서 진행해야 했는데 특히나 좁은 책상에서 먹물을 사용해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 매시간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먹물, 화선지, 물감 등은 손 소독 후 강사와 학급 선생님께서 일일이 나누어 주어야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재료는 모두 1인당 1개씩 지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초반 준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본 강의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 수업은 유독 뻑뻑하게 여겨졌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1분 1초가 아쉬웠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 세례 때문이었다. 특히나 구현초 5학년 아이들은 너무나 적극적이고 수업 참여도가 높아서 정말 짧은 강의 시간에 비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 지쳐 있던 아이들이 어쩌다 등교 수업 때 캘리그래피라는 생소한 수업을 듣게 되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작품을 완성하려는 집중력이 뛰어나 힘든 만큼 보람된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함께 모여 듣는 수업 시간을 소중히 느끼는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올해는 교육콘텐츠 수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강의하게 된 구현초등학교는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려

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눈부셨고 그런 마음을 아는 지 잘 따라와 주는 학생들이 너무나 대견했다. 캘리그래피 강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내게도 소중한 수업이었다.

• 서울대은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소고치며 춤추며 열쑤
단체/개인명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

코로나로 인해 같은 학년이어도 날짜가 바뀌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보다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뛰지 못한 채 투명칸막이에 앉아 수업을 받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호호 전달이 잘 안 돼서 졸려 하고 옆드려려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아이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뛰놀며 수업할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서울대조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리듬 스트레칭 & 댄스
단체/개인명 최희성

세계 문화의 접근성으로 춤을 통하여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움직임으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여러 나라 문화의 수용성을 키워 나가보고자 하였습니다. 방송 댄스가 대세가 된 요즘 처음 세계무용을 접한 아이들은 다소 낯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집시 킹즈의 「Oh Eh Oh Eh」의 흥겹고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추어 스페인의 투우 경기문화와 스페인의 열정, 집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느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라이언 킹 OST로 몸풀기 체조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의 느낌을 담아내 보고 또한 「Baby shark」와 같은 친근한 음악의 율동

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더불어 재미있는 표현 시간이었습니다. 마을방과후 수업으로 서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교육적 연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젠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스페인과 세계를 여행하며 지금을 떠올리며 세계문화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를 바랍니다.



• 서울불광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소고치며 춤추며 열쑤
단체/개인명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진행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나마 소고 시간에 소고를 두드리고 움직일 수 있어 좋았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사진을 찍을 기회를 놓쳐 한 장 밖에 저장하지 못해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쓰지 않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명 열쑤!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체/개인명 송은경

우여곡절 많았던 2020년……. 모두 마찬가지로 올 한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3월부터 변경, 연기, 연기, 그러다 취소……. 올해는 수업하기 틀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만난 친구들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업 마치고 재미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으며 나가는 얼굴들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제가 전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는 일입니다.

• 서울상신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신나게 DO! 자존감UP! -보드 & 컵 쌓기
단체/개인명 메타인지센터

올해도 많은 학교와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콘텐츠 사업뿐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이다. 난감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등 몇몇의 수업만을 겨우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신초의 결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미 2학기로 미루거나 아예 사업 진행을 취소한 학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2020년에 진행하는 최초의 수업이었다. 방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고 세정제를 준비하고 세정 티슈를 준비하며 학교 측 담당 선생님과 사전에 진행 방식을 점검하고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제한되어 개방된 건물 주 출입구 그리고 교실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3단계 이상을 거치는 방역 점검단계를 통해 들어간 교실에는 개인 책상별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두 마스크를 착실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로 가려진 아이들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밝은 기운이 느껴져 마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인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준 상신초 5학년 친구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사람 간 간격과 동선을 유지하고 체온을 측정하며 긴장되고 어수선한 속에서도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 강사에게도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노력하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역에 짐이 되는 방해꾼 취급을 받지 않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오히려 기우였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프로그램명 국악민요
단체/개인명 최동순

○ 우리 민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을 함께 배우고 부르며, 장구의 구조와 장단을 익히게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한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아리랑을 남겨 학생 2개 조로 나누어 발표하고, 세마치장단을 익힘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였다. ○담임 선생님 참여하에 세마치장단에 맞춰 도라지타령을 배움으로써, 발표에 자신감을 심어준 수업이었다. ○장구의 구조를 익히고, 세마치장단을 복습하며, 아리랑을 배워 발표하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세마치장단에 맞춰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우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길러준 수업이었다. ○민요를 공부하고, 장구와 세마치장단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추임새 “얼씨구”, “좋다” 등을 넣어가면서 소리하는 마무리 수업이었다.

프로그램명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난타)
단체/개인명 조윤정(마을공동체 "채")

상신초 2학년 어린이 소고 수업을 맡아서 코로나19 문제로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가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잘 적응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우리의 고유 민속악기 알아보기와 추임새 공부를 하고 강악을 치면서 무궁화 노래와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면서 발표 시간도 가져보고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추임새도 해보고 짧은 기간이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임새로는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좋구나!

자세는 바르게, 발음은 정확하게, 표정은 밝게, 인사는 공손하게, 발표는 자신 있게, 저의 수업 기본기입니다.

• 서울서신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신나게 DO! 자존감UP! -보드 & 컵 쌓기
단체/개인명 메타인지센터

2012년부터 계속 참여해온 사업인데 서신초는 올해가 처음이다. 어려운 시기의 첫 만남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 것도 같다.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교보재를 다 챙겨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신초에는 수업에 사용할 교보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1반부터 4반까지 모여 있는 5학년 복도는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고 복도도 아주 넓었으며 예술작품들까지 걸려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

코로나로 예민한 시기에 수업 결정을 내려주신 선생님들의 용기도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수업 때문에 들린 잠깐의 사이에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려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전해져 오는 듯해서 은평구 주민으로서 왠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드는 서신초였다.

밝고 맑고 조심스러움을 비추면서도 발랄한 5학년 친구들의 모습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며 흐

뒀한 미소를 짓게 한다.

즐겁게 몰입했던 수업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수업에서도 집중하며 듣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고학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매일 오셨으면 좋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지나가며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남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나를 미소 짓게 한다.

• 서울수리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얼~썩!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체/개인명 송은경

올 한해 제일 변동이 컸던 수리초입니다.

올 초반에 은평 교육콘텐츠 사업비보다 추가로 수업을 위하여 학교와 별도 계약 진행하느라 이것저것 필요서류를 제출하러 다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타 학교처럼 연기와 연기를 반복하다가 올해 수업은 취소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 4반을 2반씩 격주로 3회 수업이라도 진행하고자 하여 기간이 짧은 만큼 사물놀이 대신 모듬북 수업으로 새 콘텐츠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출강하고 바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등교일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서울수색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꼼지락 만지락 공예로 놀자~!
단체/개인명 꼼지락토탈공예연구회

꼼지락토탈공예연구회는 매년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색초등학교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1학년 친구들과 교육콘텐츠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공예 수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길이지만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했을 텐데도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마웠고, 더 좋은 작품, 더 좋아할 만한 작품을 교사로서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색초등학교에서 수업한 공예작품들을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아이들과 만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명 신나게 DO! 자존감UP! -보드 & 컵 쌓기
단체/개인명 메타인지센터

올해도 어김없이 수색초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다.

작년에 수업을 진행했던 2학년 전용 놀이 교실에서 올해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듣고 다니는 교보재가 많은데 특정 교실에서 세팅 해놓고 수업을 하니 훨씬 수업에 집중하기가 좋았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신 학교 측에 더욱더 고마움을 느꼈다. 또한, 일일이 소독하고 환기하고 교구를 닦느라 수업 간 서두르기 마련인데 방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어 한결 수업 진행이 여유로웠다.

33명의 천사 같은 친구들과 함께한 7주간의 시간은 항상 흐뭇한 미소를 선물해 준다. 나만 느끼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더욱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33명의 학생 모두 정해진 약속대로 모든 개인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모습은 가르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빠르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하면 저절로 빨라진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직접 체험하며 몸으로 배우고 나면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마음속에선 벌써 내년에 만날 친구들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프로그램명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난타)
단체/개인명 조윤정(마을공동체 "채")

2020년 코로나로 3월 개학이 연기되고 일정이 미뤄진 1학기, 한 학교도 수업을 진행 못 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결국 2학기로 수업이 미뤄졌지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던 차에 수색초등학교 진로 문예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파란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기분 좋은 10월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수색초등학교에서 난타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국악실이 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마음껏 북을 두드릴 수 있었고 11월 말부터는 따뜻한 음악실에서 수업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1회 총 12회의 수업이 진행될 동안 전통 북을 배우는 3학년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변화가 잊지 못할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팔이 아프다 여러 가지 불멘소리가 들렸는데 “집에서 연습하고 올래요.”라며 자료를 담임 선생님 통해 요청하는 친구들, 친구들을 이끌며 알려주는 친구들, 앞에 나와 대표로 북을 자신 있게 치는 친구들, 북소리를 하나로 맞춰 두드리고 시원스레 북을 치면

서 “스트레스가 풀려요~!”라고 말하는 친구들, 음악에 맞춰 몸과 북의 하나 됨을 느끼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알려주는 교사가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강강술래의 <남생아, 놀아라~>, <손치기 발치기>, <개고리 개골청> 전래 놀이도 수업 중간 중간 알려주면서 더 풍성한 수업을 하고자 애쓰니 친구들도 난타 수업을 매우 즐겁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코로나19도 북소리로 얼씬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난타 북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 됨입니다. 마지막 수업, 모둠으로 배운 작품을 발표할 때 서로 도와 하나의 소리로 표현하고 응원하고 들어주는 모습이야말로 반의 단합과 하나 됨을 이루는 수업이 아닐까요!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수업 여부가 불투명하여 너무나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는 수색초등학교 진로 문예 담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난타 수업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로그램명 열~쑹!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체/개인명 송은경

우여곡절 많았던 2020년, 모두들 마친가지겠지만 올 한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3월부터 변경, 연기, 연기 그러다 결국 늦게라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재개발의 한복판에 있는 학교라 아이들은 무척 적은 학교지만 대신 소수의 아이들과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40분의 수업 시간을 손실 없이 진행했기에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색초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계획한 수업대로 끝까지 마치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프로그램명 내 맘대로 DIY 목공교실
단체/개인명 상상목공소협동조합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여서 대면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개별포장 비대면 키트 제작과 동영상 수업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수업과는 다른 방면에서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재료를 몇 배의 정성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서울신도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창이 통통 생각 쓱쓱 종이접기 놀이터
단체/개인명 손가락놀이터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보람 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접으며 자신이 만든 유닛을 연결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종이접기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온도의 변화를 실재를 체험함으로써 호기심과 만족감을 동시에 만족스러워 활동이었습니다.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서울신사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똑딱똑딱! 나만의 감성 나무소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솔공방

코로나 단계 상승으로 수업이 11월로 완료하려던 일정에서 12월로 변경되긴 했지만 5학년 전 학생(결석생 제외)이 수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수업은 지금도 학교와 상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과 편하게 만나 수업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제일 좋은 수업의 모습이겠지요.



프로그램명 성장테라피요가 & 명상
단체/개인명 김선주

2012년부터 참여하게 된 교육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올해로 9년 차 나가게 된 신사초등학교, 매년 수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지나간 시간만큼 나도 성장할 수 있었고 담임 선생님 지지 아래 즐겁게 요가 하는 친구들을 보며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학교와의 약속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요가를 알리고 접할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명 소고치며 춤추며 열쑹
단체/개인명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아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어서 수업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작년에 신사초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동작이 복잡하고 외워야 하는 방송댄스 보다는 신나는 케이팝 노래에 단순한 동작들로 하는 에어댄스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듣는 수업이 아닌 모든 학급이 듣는 수업으로 춤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거부감 없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에어댄스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무용을 위한 것이 아닌 건강을 위한 신체적성의 한 방법으로 댄스 수업의 목적으로 두어 가르쳤다. 춤을 추지 못하는 친구들을 아주 쉽게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1-3주 차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직접 얼굴 보며 함께 춤추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고 화면으로 보는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이 어려워하진 않을까, 지루해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

대면 수업으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 지난 온라인 수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며 음악을 듣고 동작을 외우고 있었다.

관심을 가져주고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4시간 연속강의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고 지난 작품들도 잊어버리지 않고 복습도 척척 잘해주는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몸을 움직여본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학부모님들에게 동작을 알려주며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춰봤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너무 아쉽다고, 가지 말라고, 또 수업하러 와달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짧은 수업이 아쉽기도 하고 또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친구들이 댄스 수업을 즐거워하여 뿌듯하기도 했다. 매 수업 열심히 해 준 신사초 아이들! 또다시 함께 춤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서울어울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연극아 놀자~!
단체/개인명 변주희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연극아 놀자~! 콘텐츠 수업을 어울초등학교 국어, 창체 연계로 총 9회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번 수업을 돌이켜 보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극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배움의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하는 활동을 못 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되었고 그 상상력을 활용하여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할 줄 아는 창의적인 사람에 한발 가까워진 것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렵고 딱딱한 수업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를 활용하여 흥미로웠으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과제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아이가 흥미로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서 아쉬움도 남는다. 비대면 녹화 수업이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더욱더 아쉽게만 느껴진다.

이번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활동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와 같이 특수한 상황들을 대비하여 비대면 연극 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동료 마을 강사들과 소통하고 역량 강화에 힘써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넘쳤던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고 모두가 만족하고 강사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명 캘리그래피와 먹그림, 수채 일러스트
단체/개인명 김선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축소된 관계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요구하는 학교의 수요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게 되었다.

단체가 아닌 개인 강사 혼자서 촬영 장비와 촬영 소품을 준비하고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 BGM까지 입히는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 온 내가 특히나 유튜브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춰 빠르고 잘 짜인 구성을 해야 하니 그만큼 부담감이 컸다.

더군다나 캘리그래피 수업은 학생들의 글씨를 보면서 수많은 피드백과 진도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주입식(?) 강의를 해야 하는 강사에게 조금은 걱정스러운 작업이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의 장, 단점을 잘 알고 장점

을 살리되 단점을 줄여나가는 조율과정은 그래서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했고, 강의를 듣게 될 5~6학년 학생들의 유튜브 시청 습관까지 또래 아이들에게 조언을 받아 준비했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은 나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최선을 다한 만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업을 들은 아이들과 소통 창구가 없어서 강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은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의 서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번 어울초 수업은 처음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였다.

• 서울역촌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얼~쭉!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체/개인명 송은경

2018년도에 처음 만났으니 올해로 3년째 수업하고 있는 역촌초등학교네요.

제가 수업을 진행한 관내 어느 학교보다 많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학생 수도 제일 많고 그로 인해 오로지 각반 교실뿐 특별실도 강당도 하다못해 급식실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비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아예 취소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요.

역촌초는 거기에 더해 부족한 공간과 악기 공유 금지로 인해 각반에 장구 4~5개씩을 두고 수업했습니다. 악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악기가 부족하다니... 처음엔 어찌 수업을 진행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결국, 돌아가면서 온라인으로만 듣고 넘어갔던 국악수업(우리 장단)을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나갔네요.

음악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서 저는 소수의 아이에게 돌아가면서 장구 장단 지도를 하고 음악 선생님께서는 이론 수업(가락보 그리기 등등)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해 느끼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별 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물놀이 수업뿐 아니라 기타 다른 악기 수업들도 예산에서 대여라든가 하는 부분이 지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격상으로 4회기로 계획했던 5학년 수업이 중간에 서둘러 끝내버리게 됐네요. 제대로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끝내버려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감사합니다.



• 서울연광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똑딱똑딱! 나만의 감성 나무소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송공방

선생님의 많은 배려로 시간적 여유 있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항상 아쉽게도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어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역시 만족도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 서울연천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얼~썩!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체/개인명 송은경

올해는 여러모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요. 연천초는 올해 처음 수업 진행한 학교인데요. 학교 규모가 작고 학생 수도 적은 편이라 아이들이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왔습니다. 1학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수업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했다가 다시 2학기 말에 총 8차시로 계획했는데 마지막 수업 일을 앞두고 수도권 2.5단계 격상이 되어 그냥 6차시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수업 마무리를 못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프로그램명 동화 스토리 뮤지컬
단체/개인명 최애영

동화 스토리 뮤지컬을 통하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동화 내용에 각색을 통한 극의 흐름을 이해하며 자연스러운 극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대공연을 통해 나도 몰랐던 혹은 내 안에 감춰진 나의 끼와 자신감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무대를 완성하는 배려와 협동을 넘어 대사, 노래, 동작, 소품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종합예술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기쁘고 즐거운 모습들이 매번 교사를 설레게 합니다.

• 서울은명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성장테라피요가&명상
단체/개인명 김선주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수업이 중단되어서 남아있는 수업 일정을 채우지 못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배움과 체험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울은빛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행복한 연극 교실
단체/개인명 수이앤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유례없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연극 교실>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진행하여 주신 은빛초등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지 않은 대면 수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연극 교실에 할애하여 주신 5학년 담임 선생님들, 외부 강사의 교내 출입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지하여 주신 교장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서로 눈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접촉할 수 없는 수업에서 '연극'을 배우고 느끼고자 애써주신 학생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비접촉 상황에 필요한 수업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저희 강사진이 노력한 결과가 학생들에게, 또 은빛초등학교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비록 학생들의 '발표회'를 경험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표현'과 '소통'이 학생들의 미래에 있을 더 중요한 발표회에 밑거름이 되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연극 교실을 만들어 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 서울은진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체험 뽀뽀 동화교실
단체/개인명 도서출판 푸른미래

코로나 유행하던 학기 초반 해도 학교 수업은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여전히 등교는 미뤄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수업뿐만 아니라 회의나 사회적 만남이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 시간이 지리멸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일별 수업이 진행되고 천천히 정상 수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을 때 수업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수업은 힘든 상황이었다. 그동안 미뤄졌던 학교 외의 수업도 해야 했고 사회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기계발 시간이라도 갖자고 등록했던 수업이 진행되는 와중이었으며 어차피 올 1년은 수업 없던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수업할 학년이 초등 1학년이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간 1학년들. 코로나로 입학도 수업도 없어진 날들을 보냈던 1학년. 학교 갈 때 메려고 준비한 가방을 메고 매일 밤 잠든다는 1학년. 엄마랑 나산 산책길에도 그 가방을 메고 따라나선다는 1학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이렇게 힘들 때 가서 예쁜 꽃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다른 수업을 못하더라도 올 1학년들과 꽃 이야기를 하며 수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첫 수업, 25명의 학생 중 월요일반 13명이 얼굴의 반도 더 가린 마스크를 꼭꼭 눌러 쓰고 한 칸 건너 하나씩 앉아 있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중하는 아이들, '선생님 나 그거 알아요.' '선생님 그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하면서 손을 치켜들던 아이들은 '개망초' 이야기에서 숨을 죽이고 남천 이야기에서 '한국요' '한국이에요' 하면서 즐거워하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글자를 자신이 읽겠다며 더듬거리며 읽어주기도 했다. 손수건 꽃물들이기 체험에서는 얼마나 신기해하던지 자신이 물든 손수건을 꼭 사진 찍어달라며 부탁하기도 하고 물든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네모반듯하게 잘 접어 건네주면 소중하게 꼭 껴안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자기도 똑같이 접어 달라고 매달리기도 했었지. 그리고 다시 심해진 코로나로 2주년을 쉬는데 숨이 막혔었다.

그 후 다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앞에 처진 투명막... 그래도 수업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한 반이 함께 모여 수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던지. 동영상 보고 손 유희를 했던 곰 세 마리를 체험하는 내내 흥얼거리던 1학년 2반 친구야, 풀냄새가 이상하다고 항의하던 4반 친구야 올 1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있어 웃었네. 고마워.



프로그램명 신나게 DO! 자존감UP! -보드 & 컵 쌓기
단체/개인명 메타인지센터

올해도 은진초 3학년 학생들과 컵 쌓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보재를 들고 주차장에서 학교를 들어갈 때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왠지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도 보안관 선생님과 함께 서서 환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신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단축 수업으로 인해 수업 시간마저 짧아져 서운해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더 사랑스럽다. 아직은 새싹 같은 3학년이라 그런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졸라 컵 세트를 구매하는 모습을 자주 보



게 된다.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 그런지 은진초 학생들의 경우는 더 흔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 같다. 열심히 연습해서 국가대표가 배출될 수 있다면 더욱더 뿌듯할 것 같다.

소감문을 통해 항상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본다.

프로그램명 똑딱똑딱! 나만의 감성 나무소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솔공방

학급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망치를 사용하여 난이도가 있는 작업도 잘 해결해가면서 완성하였습니다. 설명 중 잠을 자던 학생은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조립을 하니 흥미를 느끼고 본인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여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학생은 작년에 형이 만들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해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저희에게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강사 선생님들이 이직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서울은평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청소년을 위한 체험음악회
단체/개인명 도음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음악적 이해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시야가 높아질 수 있었고, 여러 클래식 악기의 이해와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지휘 체험으로 인해 예술인

의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휴식이 되고 또 연주자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내년에도 이런 공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 서울응암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 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응암초는 올해 처음 수업을 맡게 되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6학년 수업은 취소가 되었고 5학년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다.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수업이어서 많이 서툴고 부족했을 것 같다. 영상 조회 수, 영상 지속시간 등을 보면서 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안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간혹 댓글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온라인으로 하는 댄스 수업이 어렵고 지루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10주 동안 영상 잘 봐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또다시 기회가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응암초 친구들과 함께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사진~디지털&아날로그 (photograph DNA)
단체/개인명 노민희

사진 촬영이란 것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치며 찍어보고 알려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를 잘 다루게 되며 촬영하는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코로나라는 방해물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원격수업을 진행해보게 되었다.

응암초 손경은 부장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방법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사진도 어차피 화상의 한 종류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일 거 같아 시작하게 된 줌 화상 수업이었다.

처음 혼자 빈 교실에서 덩그러니 모니터와 화상 캠을 보며 어떡해야 하나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했고, 첫시간……. 역시나 집에서 그리 아이들을 데리고 연습에 연습을 하고 갔음에도 생기는 어설피름에서 오는 실수에 진땀도 흘리고, 내 일처럼 뛰어 올라와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담임 선생님들 덕에 무사히 진행하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원격수업에 첫발을 디뎠다.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과, 오롯이 준비해간 PPT를 공유시켜가며 설명하고 질문 받고, 알려주며, 촬영해온 사진을 다시 공유해서 잘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고, 때론 화면 밖으로 사라져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마주 보며 알려주면 바로 끝날 일을 길~게 설명하는 것도 답답도 했지만, 한주가 다르게 늘어나는 아이들의 사진 실력과 핸드폰으로 게임과 메신저만을 즐기던 아이들이 핸드폰의 다른 기능을 찾아 재미를 느끼는 점이 뿌듯하게 다가왔다.

더 잘 찍고 싶어 하고 잘 찍은 다른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감탄도 해주고, 여전히 참여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계속 독려도 해주시는 모습에서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모습을 봤던 거 같다.

찍히면 바로 보이는 디지털만이 아닌 찍고서 기다려야 볼 수 있는 아날로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만, 여건상 수업 시간도 줄고, 화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5반의 아이들을 똑같이 진행해줘야 하는 여건에 마지막 고른 사진 한 장씩을 보정해 인화해주며 아쉬움을 달래본다.

새로운 수업방식을 찾은 것도 있겠지만, 작은 핸드폰 화

면으로 진행하는 화상 수업이 사진을 느끼기엔 힘들었을 거 같고, 카메라라는 기계의 기능을 가르쳐 주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원격수업이었다.

• 충암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똑딱똑딱! 나만의 감성 나무소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솔공방

수업 중 말을 많이 하게 되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려고 해도 수업 특성상 아이들과 거리 두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컴퓨터로 조립할 때와 칠할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업해서 앞으로는 수업 중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수업 중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서로 적응해 가며 원활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명 창의 통통 생각 쓱쓱 종이접기 놀이터
단체/개인명 손가락놀이터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보람 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아이들 또한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접으며 자신이 만든 유닛을 연결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 내 맘대로 DIY 목공교실

단체/개인명 상상목공소협동조합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여서 대면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개별포장 비대면 키트 제작과 동영상 수업이라는 경험에 생겼고 대면수업과는 다른 방면에서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재료를 몇 배의 정성으로 포장하였고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은평대영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댄스 퍼포먼스 강사로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특수학교 아동들이라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던 처음 시작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먼저, 학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동아리 담당 선생님, 봉사 선생님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외부 강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수 아동을 처음 맡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해 주셨고 피드백해 주시며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다. 또한, 함께 학생들을 책임지고 챙겨나가는 모습이 믿음직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이 느껴졌다.

5학년과 6학년 분반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얼굴을 더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힘들 수 있는 댄스 수업에도 함

께 참여하고 뛰는 학생들의 모습과 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고맙고 뿌듯했다. 처음에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다소 어렵게 느낄 줄 알았던 방송 댄스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해보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예뻐다. 점점 참여하고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내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닌 성취감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명 공예 클래스 101

단체/개인명 스프링샤인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이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것에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한 교실에 모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루빨리 마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구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댄스 퍼포먼스 강사로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남녀 공학이라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던 처음 시작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먼저,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1학년 부장 선생님, 1학년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 1학년 예체능 담당 선생님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외부 강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모두가 처음 접하는 온라인 수업임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또한 함께 학생들을 책임지고 챙겨나가는 모습이 믿음직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이 느껴졌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성실하게 연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또 과제 양식에 맞게 노력하여 제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고맙고 뿌듯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댄스 퍼포먼스 수업이었을 것이고, 또 방송 댄스를 접하던 친구들에게 댄스 기본기가 다소 생소했을 수 있었을 것인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예뻐다.

오프라인 수업 또한 영상 강의와 활동지 작성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내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닌 성취감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덕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은평구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토탈 공예'

단체/개인명 공예사랑협회

모든 아이가 처음 접해보는 작품이었는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다

양한 창작 작품을 체험하여 심미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 불광중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댄스 퍼포먼스 강사로 두 번째 가르치게 된 중학교 친구들이었고, 이전 중학교는 대부분 온라인 또는 이론 강의로만 이루어져 처음 가르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먼저, 담당 선생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외부 강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항상 오고 가는 길 학생들을 통솔해주시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함께 학생들을 책임지고 챙겨나가는 모습이 믿음직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이 느껴졌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가서 내심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놀랐고 말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이고 열심히 따라 하려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남학생들도 부끄러워하지만 같이 하자 하자하며 열심히 참여했고 여학생들도 남자 노래 위주로 진행했음에도 정말 좋아해서 이 시간에 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마지막 기수는 코로나 악화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마무리하게 되어 많이 아쉬웠다. 제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학교였고 더욱 학생들을 만나는 데에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



• 상신중학교 •

프로그램명 함께 가는 아시아여행

단체/개인명 마을무지개

체험 수업이 영상 수업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아이들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의 대면 수업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하는 수업을 즐거워하였으며 다문화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수업에 대한 만족도 컸습니다.

• 선일중학교 •

프로그램명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유쾌한 뮤지컬'

단체/개인명 공연기획ASK

은평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찾아가는 체험 공연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선일여자중학교에서 코로나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며 학생들과 함께 체험 공연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인상 깊고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한다면 더없이 좋지만, 시간상의 어려움과 대면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명 사진~디지털&아날로그 (photograph DNA)

단체/개인명 노민희

우여곡절 많았던 선일여중 수업이었다. 교육콘텐츠 수업 중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와 작년 12월 말부터 일정 조율해서 확정해 두고 있었던 수업이었는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해서 계속 미뤄지고 바뀌었다. 수업을 취소하자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담당 선생님은 사진수업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셨고 매번 일정이 바뀔 때마다 죄송해하며 조율을 진행하셨고, 어찌어찌 1학기에

끝났어야 하는 방과 후 수업이 9월이 돼서 5회차로 축소하기로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주의 단계 격상으로 수업하기로 한 1학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급하게 실시간 줌으로 수업하기로 결정,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집에서 언택트를 실천하게 되었다.

매주 알 수 없는 상황에 수업하기 전 상황을 체크하고 수업내용 변경하고, 겨우 겨우 3회차 만에 만난 아이들과 필름카메라를 찍게 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학교 운동장에서 한정적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신기해하며 내가 가져간 커다란 SLR필름 카메라도 만져봐 가며 즐겁게 진행했다.

작은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처음 보는 카메라에 찍은 결과물이 아니라 일회용 카메라 케이스를 더 갖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웃음도 나왔고 현상된 필름과 결과물로 나온 인화를 보며 소리 지르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생기게 했다. 마지막 수업까지 이틀 전에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온라인으로 뽑은 사진 일일이 공유해가며 실제로 느껴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교실에서나마 작은 전시회를 하고 싶었던 작은 소망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 선정중학교 •

프로그램명 감성글씨 캘리그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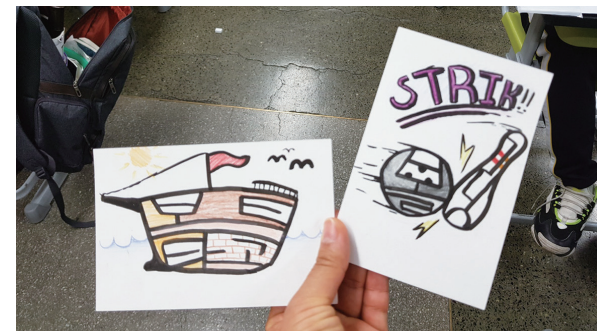
단체/개인명 예미담

5년간 자유 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선정중 1학년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수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분야 중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캘리그라피를 위주로 다루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8회기의 수업 동안 아이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한글의 조형미와 본인의 독창적이면서도 소중한 감성들을 매번 표현해 가는 과정이 너무 대견합니다.

특히 선정중학교의 경우는 학교 특성상 유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에 한글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 역시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다년간 선정중학교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외부 강사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학사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맡은 교사로서 책임감을 더욱 막중히 느끼며 마을 강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더 가까이 진실하게 임하는 너무 소중한 수업입니다.



• 송실중학교 •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늘 첫 수업엔 새로운 기수의 학생들이 궁금해지고 기대감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살짝 설렘을 가라앉히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1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4번의 수업을 하고 다행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죠.

대면 수업 첫날, 더욱 설렌 것 같습니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잘 습득했는지 궁금했는데, '우와~!' 너무 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서로 박수쳐주고 응원해주는 매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꼭 채운 2시간 수업을 땀에 젖은 모습으로 수업해준 송실 중학교 1기 덕분에 힘들지 않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2기 수업은 대면 수업을 먼저 해서, 반장도 뽑고 출석체크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마스크는 썼어도 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업 진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결국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실중학교 1, 2기 덕분에 코로나19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땀방울 맺혀있던 모습, 학우들의 응원해주는 박수 소리, 구호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마스크가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 신도중학교 •

프로그램명 우리 궁궐 이야기

단체/개인명 박은영

코로나라는 큰 장애로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갑자기 찾아온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주 바뀌는 수업 시간으로 개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았다.

늦게 시작된,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익숙치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초반 강의는 성의 없이 된 것 같아 1기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더 많은 기수는 첫 비대면 수업이 마지막 교실 수업일 때 어색했었다.

교실 수업 때,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 보면 침묵시위를 하는 느낌도 들었다. 현실 세계라기보다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여태껏 평상시에 했던 수업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은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에도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온라인 수업 준비를 더 해야겠다.



• 연서중학교 •

프로그램명 감성글씨 캘리그라피

단체/개인명 예미담

4년에 걸쳐 연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환기시기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해는 각반마다 1회

기씩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두 번째 해는 2회기씩 수업을 진행 하였으며 캘리그라피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3회차씩 수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복잡하고도 들떠 있는 감정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통한 마음의 정리와 더불어 각자 본인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여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작품들에 만족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으로서의 마음뿐 아니라 엄마로서의 마음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대견스러움을 느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시간 수업에 들어오셔서 분위기도 함께 잡아주시고 협조해 주시니 수업 진행 내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해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는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 예일여자중학교 •

프로그램명 은평구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토탈 공예'

단체/개인명 공예사랑협회

모든 아이가 처음 접해보는 작품이었는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다양한 창작 작품을 체험하여 심미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 은평중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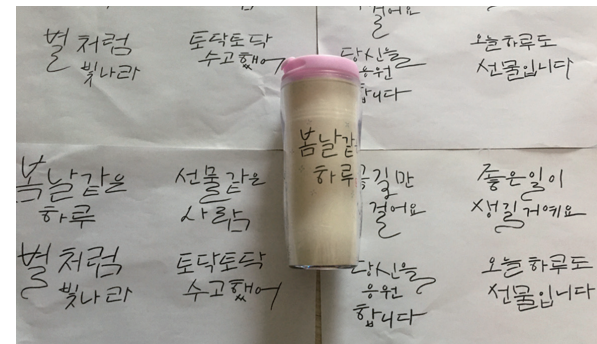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캘리그라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단체/개인명 한국나비아트스쿨문화원

은평콘텐츠연계사업으로 은평중학교에서 “ '캘리그라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 프로그램으로 1일 체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은평중 2학년 친구들과 캘리그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그라피 글씨를 처음 써본 친구도 있고 배워본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수업을 잘 따라와 주었고, 설명도 잘 듣고, 작품들도 대부분 완성도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는 하루 특강으로 배워서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체험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 글씨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을 못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친구들에게 알찬 내용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밤샘편집으로 힘들었지만, 서체를 배우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의 영상으로 은평중 2학년 친구들이 수업 참여와 작품완성품까지 정말 잘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알찬 내용의 수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평중학교 친구들과 캘리그라피 체험을 하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명 나도 도예가! 스토리텔링 도예 프로그램

단체/개인명 한국콘텐츠통합교육협회



코로나19로 몇 차례나 일정을 연기해야 했다. 일정이 바뀌자 사전 세팅해 두었던 강사들마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섭외해야 했다. 겨우 세팅을 해두면 또 연기되고, 게다가 어린 자녀를 둔 강사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출강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거의 반포기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하루에 8개 반을 다 진행하기로 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했다. 어렵게 강사들을 섭외했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을 보여 주면서 꼭 필요한 제작 실습 코멘트만 해 줄 작정이었다. 수업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들어섰다.

매년 4월 말~5월 초에 수업하다가 코로나19로 늦가을에 1학년 학생들을 만나니 새로웠다. 그 시간만큼 훌쩍 자라 있어 평년의 중1들 같지 않았다. 대부분 점잖았고, 코로나19로 나름 마음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았는지, 훌쩍 커 있었다. 예술문화체험 활동을 고대하고 그리워했던 듯 모두 반가워했고, 즐거워했다.

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처럼의 현장 수업, 아이들의 열기를 느끼며 힘든 줄 모르고 4시간 연강을 했다. 수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며 수업 뒷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힘들었노라고, 그래도 이렇게 현장 교실 수업을 하니 너무 좋다고,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 수업하면서 느낀 갑갑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와 세상, 모두가 변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 네트워크,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온라인 비대면 시대, untact 하면서 ontact 해야 하는 시대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모두 달라졌고, 성장, 발전

해 가고 있다. 너무 힘겨웠던 한 해였지만, 그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도 곱절 커졌다.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모두 모두 파이팅, 모두를 응원합니다!!!

• 증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우리마을 청소년 영화프로그램
단체/개인명 모두를위한극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수업 방향을 수시로 바뀌어야 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학생들을 직접 만나 영화를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첫 시간에는 유튜브 콘텐츠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보다 쉬운 접근으로 영상 언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특정 유튜브 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상 구도를 예로 들며 어떻게 의도해서 연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이라도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수업에 대한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병행 수업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제작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참여도와 과제 제출률이 매우 높아 모두 성실하게 참여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전환 시대로 접어들며, 전체적인 학습 목표 아래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교수법들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기존 강의를 단순히 영상으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형식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동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하고 시도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하여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마을 강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유용한 미디어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 충암중학교 •

프로그램명 나도 디자이너
단체/개인명 성희연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전파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업 일정이 코로나 창궐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문서 작업에는 익숙했는데 처음 하는 영상 작업은 기술적인 것을 유튜브에 의존하여 배우고 실습했습니다. 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많이 답답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충암중학교 디자인반 학생들은 디자인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제품으로 완성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한 디자인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 선택지를 넓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EBS 북카페 해설자와 함께하는 건강한 인문학
단체/개인명 올더콘서트

매년 참여하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을 통해 은평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의 우수한 지원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 교과과정으로 입시에 국한된 수업을 받던 청소년에게 눈높이에 맞는 강연과 재미있는 공연으로 이루어진 북 콘서트를 제공하며 10년간 꾸준히 단체 또한 동반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그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 공연과 온라인 콘서트를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며 더 나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과 채널도 달라져야 마을 단체, 마을 강사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다각화된 온·오프 병행 수업으로 확장하여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사진~디지털&아날로그 (photograph DNA)
단체/개인명 노민희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기존에 잡았던 방과 후 수업 일정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행이 되고, 세워놓은 커리큘럼은 코로나 주의 단계에 따라 2-3일 전에 급하게 변경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업을 진행한 느낌이다.

1, 2, 3학년 동아리를 수업하면서 등교하는 학년과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는 학년이 생겨서 한 팀은 교실에서 다른 팀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기도 했다. 처음 계획했던 동아리 시간들이

변동이 생기면서 6주간의 수업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1, 2, 3학년 전체 등교가 이뤄지지 않으니 지난번에 한 수업을 이번 주에 하고, 수업 받은 학년은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참 정신없었다.

디지털에만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일회용 필름카메라에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자신만만하게 실수 없이 찍겠다고 큰소리치다가 막상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재미있어하고 허탈 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본 것은 뿌듯했다.

찍히면 바로 보이는 핸드폰과 다루기 편한 편리성, 늘 사용하던 것에 대한 익숙함이 아닌 작은 화인더로 들여다보며 오롯이 어떻게 찍힐지 상상하며 셔터를 눌러야 하고 찍은 결과물을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색다른 느낌을 느끼는 아이들. 엉망진창으로 나온 결과물에.. 화면으로만 보는 결과물이 아닌 인화지에 뽑힌 사진을 보는 아이들 모습은 너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고, 마지막 본인들의 사진으로 엽서 형태로 만들어준 결과물엔 뿌듯해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힘들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프로그램명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단체/개인명 KTOPDANCE

선일이비즈니스고 동아리 수업을 맡게 되었다.

춤에 관심이 많은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잘 참여해 주었다.

기본기 다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가 습득력도 빠르고 훌륭했다.

걸스힙합, 방송댄스 번갈아 가며 수업을 했고 장르를 불문하고 재미있게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해 주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횟수가 적은 수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

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춤에 관심이 많고 또 즐기며 춤을 출 줄 아는 친구들이라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 또 다시 기회가 되어 만나게 되었을 때 발전된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선정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패션디자인&스타일링
단체/개인명 어나더메이크(고은정)

먼저, 선정고등학교 패션디자인 동아리 수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션디자인 동아리 1, 2학년 학생들 각각 3회차 동안 굉장히 흥미를 갖고 열정적으로 이론 및 실습수업에 임해주었으며, 패션디자인에 대한 재능이 돋보이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결과물 또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지도 강사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회기보다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짧은 3회기 속에서도 패션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차시에서는 패션 세계의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패션 테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컨셉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잡지 속 이미지들을 해체 및 재조합, 참신한 구도로 배치하여 창의적이고 통일감 있는 이미지맵을 표현하였습니다.

2차시에서는 패션디자인 구상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패션 아이템 및 디자

인 요소를 구상하여 스케치하고, 그 위에 다양한 원단을 오려 붙이며 조화롭고 독창적인 패션 일러스트를 표현하였습니다.

3차시에서는 패션 커스터마이징과 핸드페인팅 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스크테이프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면 분할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 패브릭 물감으로 채색하여 나만의 개성있는 에코백 디자인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멋지게 진로를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명 함께 가는 아시아여행
단체/개인명 마을무지개

각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아가고 선생님을 통한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기본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맛과 멋으로 배우는 민속이야기
단체/개인명 유진문화센터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마을 강사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 유치하다고 여겨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었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여 주었다.

색과 문양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로움과

문양에 담긴 여러 가지 소망을 엿볼 수 있었고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각자의 전공에 따라 성향이 두드러지게 다른 아이들……. 각각의 성격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을 교육콘텐츠 마을 강사를 통해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찻자리 체험이 학생들에게 좀 더 우리의 잊혀가는 예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며 수업에 임했다.

생소하고 낯선 명칭의 다구들을 접하며 다소 어색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분위기는 많은 친구가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미있게 임하면서, 전통예절과 다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대상(친구, 웃어른, 아랫사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절(인사)의 각도와 인사말, 다구를 다루는 방법, 차를 우리는 방법, 오감을 이용해 차를 음미하는 방법(눈으로 색을 보며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맛을 음미), 찻 자리에서 다식을 먹는 이유와 예의, 다식의 크기가 작은 이유, 찻 상포인 다포를 걷고 덮는 법, 6대 다류(황차, 흑차, 홍차, 백차, 오롱차, 보이차)는 모두 차나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며 버거울 것만 같았던 수업을 학생들은 참으로 열심히 짧은 시간에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다. 옛사람들의 고리타분한 문화라는 생각보다는 올바른 예절을 익힘으로써 조금 더 차분하고 바른 인성으로 교양을 갖추고자 하는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차의 종류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콘텐츠 기관으로서 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

전통예절과 전통문화 등 잊혀가는 우리 것과 자꾸 급하게 흘러가는 시대에 조금 더 여유와 느긋함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전통예절생활관이 우리 은평에도 만들어져 많은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품위있고 기품있는 은평의 교육 문화 공간이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 세명컴퓨터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난타)
단체/개인명 조윤정(마을공동체 "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연습실로 예정되었던 동아리 수업이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로 인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게 되었던 수업. 다행히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서대환 담당 선생님의 노력 끝에 짧지만 굵게 수업을 하게 되었다. 서대환 담당 선생님께서는 강남의 초등학교로부터 공유 악기를 신청해 주셔서 악기를 공급해주시고 토요일 아침 일찍 오셔서 수업준비를 해주시는 열의가 있어 이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다.

취업준비에 정신이 없는 3학년학생들, 늦잠 자는 주말아침인데도 밝은 얼굴로 와준 학생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난타는 처음이라면서 박자를 놓칠 때마다 아쉬워하는 표정, 마음과 몸이 따로라 대략난감을 표현했던 얼굴들이 생각난다. 악기를 준비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음향기기가 서툴러 물어보았을 때도, 서로 물어보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이 좋아 보였다.

등~ 북채로 1번 치면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쳐 주었고
등등~~ 북채로 2번 치면 집중을 해주었고
등등등~~~ 북채로 3번 치면 우리 한번 해 볼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등등등등~~~~ 북채로 4번을 치면 4연음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기다리면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겠지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수업해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여러분, 담당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 송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나는 도시 목수다

단체/개인명 문윤숙

송실고등학교 8차시 방과 후 목공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종료 후 4시에 목공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학생들의 열정과, 작업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에 강사로서 수업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원하는 진로가 건축과나 예체능 방면인 학생이 많고 목공수업을 희망한 학생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와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목공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공구 사용 및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경험해 보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작업의 속도나 결과물에 대한 집착보다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이 중요한 시간으로 또한 훌륭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수업 전 담당 선생님께서 열 체크 및 손 소독,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수칙을 잘 점검해 주셔서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예일디자인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청소년을 위한 체험음악회

단체/개인명 도움오케스트라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수업 및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눈앞에서 직접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체험공연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게 하고, 지금 시국에 꼭 필요한 절제 되면서 능동적으로 참가하기에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번 프로그램 도중 우연히도 연주곡 중 하나인 ‘오나의 태양(O Sole Mio)’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1학기 수행평가 과제였다고 한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조금은

아쉬웠던 마음을 다 함께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며 달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체험공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향후에는 참가 대상 학년 대별로 교과목 수행평가로 나오는 노래를 공연과 연계하여 실제 공연과 같은 환경에서 해당 곡을 감상하게 하는 구성도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공연 전반적으로 강사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임했고, 학생들은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질서정연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진,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간 안전한 환경을 보며 향후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안전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 진관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은평구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토탈 공예'

단체/개인명 공예사랑협회

진관고등학교 특수반 수업 요청으로 많은 준비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처음 접해보는 작품이었는데도 능동적인 참여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즐겁게 수업을 마치며 내년을 기대한다고 말을 해주어 뿌듯하였습니다.

• 서울수리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아두이노 코딩' LED 전자회로와 스크래치
단체/개인명 나비아트스쿨

작년에 참여한 학교에 다시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랑 병행하여 진행하여 대면 수업보다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진행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게임을 만들어 내면서 수업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으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는 수업에서 설명을 열심히 들어 직접 신호등을 만들어 내는 모습에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재밌었습니다.

• 서울연광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건축 디자인
단체/개인명 김민지

초등학교 6학년 건축디자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학교 수업에서도 경험했었지만, 건축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참여도가 좋아서 감사인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건축디자인 수업 과정이 입체를 디자인하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입체를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고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체 만드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림을 모형으로 진행하는 수업내용은 학생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워했지만, 정규수업 80분에 쉬는 시간 10분까지 모형을 만드는 학생들의 열의에도 시간적인 부족함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건축디자인으로 참여한 초등학교 은평교육콘텐츠연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열기를

느끼는 즐거운 수업이 되었고, 감사인 저에게 수업에 대한 더 많은 준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명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단체/개인명 에코맘 협동조합

초등학교라 더 조심스러운 코로나 시대. 모둠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업이었으나 학교 담임 선생님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개별 수업을 요청하여 분주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재료를 계량하여 혼합하는 과정도 어수선했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각자 나만의 천연제품을 만들며 즐거운 하는 모습에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서울응암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보드&스태킹 -나도 놀이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노는엄마협동조합

응암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1학기 수업이 모두 취소되거나 미루어졌다가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오랫동안 쉬었다가 첫 등교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올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츠 스태킹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택킹 수업을 진지하고 재미있게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서로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택킹 기본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서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따라 해 주었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왜 더 안 하나고 울먹이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친구들과 접촉도 어려워 수업프로그램을 짜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마지막 시간에 많이 아쉬워하니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콘텐츠 수업으로 길게 수업을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늘 아쉬워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이들과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 은평대영학교 •

프로그램명 가족공예로 실용만점 소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예미담

매년 대영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공예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최대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과 결과물을 보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늘 보람을 느낍니다.

매해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단체당 1가지 프로그램만 신청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가족공예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많이 아쉬워 하셨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학교 아이들이므로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가능한 활동 위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고급 공예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뿌듯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대영중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불광중학교 •

프로그램명 진로 JOB GO! 보드 JOB GO!
단체/개인명 송연희

불광중학교는 총 16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 수업은 3학년 8개반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서 진로와 진로를 선택할 때 꼭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알려줬고, 직업 카드를 탐색하면서 내가 관심 있거나 알고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었고 모두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차 수업은 급작스럽게 일정과 수업방식이 변동되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 마지막 날에 학습꾸러미로 활동지와 활동 스티커를 직접 컬러로 출력하여 전체 학생에게 배부했고,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상향조정으로 모둠 활동을 하는 보드게임 수업이 안타깝게 불가하여 다양한 퀴즈와 게임, 그리고 직접 꾸며보는 활동지 작업을 대체하여 넣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업 전달까지 수업에 대해 긴장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스트레스였지만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모습을 보면서 더 의욕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학년 전환기 수업을 2차시 믿고 맡겨준 만큼 열심히 준비하여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명 영화 만들고 싶어? 랫츠 기릿!
단체/개인명 도움공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오프라인은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그렇고 학생들이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는 등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들은 한 번씩은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고 배우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상신중학교 •

프로그램명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
단체/개인명 협동조합 청청

학생보다 더 열의를 갖고 계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부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교사, 강사, 학생이 어우러져 최고의 수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 피드백, 요청사항 등 소통이 이루어져서 좋았습니다. 몇몇 아이들 또한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희 청청과 함께 하고 있으며 청청의 다른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미디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

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일여자중학교 •

프로그램명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단체/개인명 에코맘 협동조합

코로나로 여러 번 일정을 조정하여 드디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수업 내내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 선정중학교 •

프로그램명 보드&스택킹 -나도 놀이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노는엄마협동조합

여러 해 동안 하던 자유학기제로 모든 것을 준비해오던 차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수업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로 자유학기제를 시작하였



다. 간간히 대면 수업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대부분 대면수업과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생기는 답답함이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준비로 점차 해결해가면서 많은 공부와 새로운 환경의 적응이 생겼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강사와 학생들이 서로 웃고 즐기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 송실중학교 •

프로그램명 반.세.기(반전 세계문화 기행)
단체/개인명 김미정

반전 세계문화 기행 수업의 콘텐츠는 각 나라별로 개관 내용과 상식적인 내용뿐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나라와의 연계성을 통해 더 친숙한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회기별로 나라 특성에 맞는 활동(축제 아바타 만들기, 커피 방향제 만들기, 비버테일 만들기, 티코스터 만들기, 터키쉬 딜라이트 맛보기, 큐 그레이더 체험하기, 나만의 캘리그래피 체험하기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의 수업 흥미도를 높이고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우리 강사진은 발 빠르게 모든 수업 콘텐츠를 온라인수업 플랫폼에 맞게 음성을 삽입하여 다시 제작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 각 나라별 재료 꾸러미를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수업 중에도 재료 꾸러미로 활동하기와 여권 꾸미기를 통해 더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수업 참여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후반부에 와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으로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이 3회 이루어져 만나서만 할 수 있는 세계의 보드게임과 비버테일 만들기, 나는야 이 나라

홍보대사 포스터 만들기과 경매하기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수업의 본 취지와 목표에 맞는 수업이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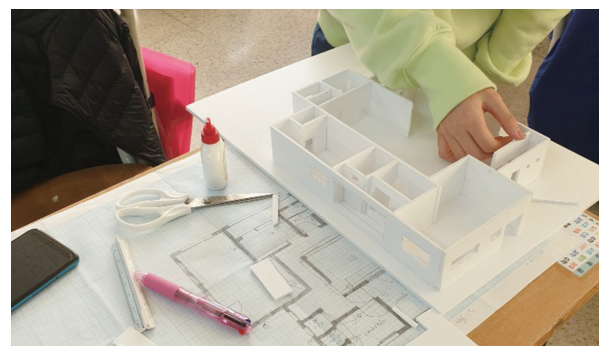
2021년에도 개선할 점을 찾아 보강하여 시대 흐름과 트렌드에 맞는 반전세계문화기행 콘텐츠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 건축 디자인
단체/개인명 김민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으로 건축디자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놀라웠던 점은 건축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참여도가 좋아서 강사인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학습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은 도면을 작성하고, 모형을 만드는 등의 강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대면 수업이 효과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비대면 수업에 잘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많



이 들었습니다. 어색했던 비대면 수업 준비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다행히 대면 수업으로 도면 그리기와 건축모형 만들기 수업 등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중학교 1학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심도나 참여도가 좋아서 수업 진행이 생각보다는 수월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건축디자인으로 참여한 은평교육콘텐츠 연계수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열기를 느끼는 즐거운 수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명 심폐소생술 및 학교안전교육 -생명을 살리는 손
단체/개인명 한국재난안전연구소

송실중학교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밝고 활동적인 느낌 자체였다. 11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실습과 이론을 겸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중에도 단비 같은 시간이 주어져 실제 대면을 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대응단계가 높아져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름 하나하나가 더 정겨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대답하며, 궁금한 것들은 묻고 또 물으며 수업을 진지하게 듣고 실습하는 친구들이 덕에 실습 교육 진행이 수월하고 체험 교육 전달에 있어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생명의 소중함과 ‘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무게감’ 심폐소생술의 의미 나의 행동 실천이 미치는 영향까지의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 반에 알면 좋은 생활 안전이야기를 구성해보며 수업을 진행 했다. 직접 교구를 이용한 체험 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각 차시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위기 상황 판단과 상황 대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충격기사용에 대한 용어나 예시에 어울리는 상황, 정보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을 영상 활용 교육으로 이해도가 빨랐다.

‘생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해준 친구들과 함께한 학교 안전 7대 영역 문제풀이와 정답을 맞춰보며 잘못 알고 있었던 안전 정보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안전 정보들도 공유하며 안전 교육의 의미와 정

보에 대해 많은 대화와 친구들과 간에 ‘생명 살리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해당 7대 영역에 대해 각각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반별 또는 친구들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손’ 안전한 우리 교실 만들기에 송실중학교 1-4, 1-6반 친구들이 안전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라는 응원을 함께 해 본다.

프로그램명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
단체/개인명 협동조합 청청

작년 송실중학교와 인연이 되어 올해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칭찬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 연서중학교 •

프로그램명 나무에 그리는 뜨거운 그림 우드버닝 (인두화)
단체/개인명 강소영

연서중학교는 1학년 대상 주제 선택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고 미뤄지다 코로나가 약한 기간에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엔 여러 프로그램을 하길 원하셨지만, 상황상 캘리그래피 우드버닝을 하게 되었고 부장선생님도 1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활동이 너무

없다고 하시며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셨다. 아이들은 짧은 설명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캘리그래피 문구를 골라 우드버닝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 강사가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골랐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정말 쉬는 시간도 잊고 집중하는 모습에 우스갯소리로 “숨은 쉬면서 하고 있니?”하고 물으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품은 개개인의 개성에 맞게 완성되었고, 완성된 작품에 만족해하였으며, 못다 한 아이들은 남아서 마무리 지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집중하는 모습에 담당 선생님도 신기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이번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한 명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연신중학교 •

프로그램명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 단체/개인명 협동조합 청청

작년에도 신청해주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이 청청 미디어팀에서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평소 만족도가 높은 학교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아이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연천중학교 •

프로그램명 반.세.기(반전 세계문화 기행) 단체/개인명 김미정

많은 기다림과 오랜 준비 시간을 보내다가 반.세.기(반전 세계 기행) 콘텐츠 수업을 연천중학교에서 총 7회차 진행하였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수업!

낯설기만 했고 준비과정의 시작은 막막하기만 했었다. 처음이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체험활동이 많은 수업 특성을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 녹여낼까도 많이 고민되었다. 또 학생들 역시 오랜 시간 학교에 오지 못하다가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기에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친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수업의 일부분이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다. 두 번의 대면 수업은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귀하고 반가운 시간이었다. 학생들과 이름을 부르고, 마주 보며 함께 웃고 소통하며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조금은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대면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에 따른 나라별 특징이나 여행담을 스스로없이 발표하며 친구들과 공감대를 만들기도 하고 체험활동에서 창의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온라인 수업 준비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업 콘텐츠를 만들고 계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강사로서 새로운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을 못 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모두 낯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의 수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번 수업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준 연천의 어여쁜 학생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하고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수업이었다.



• 영락중학교 •

프로그램명 진로탐험대 - 미니컴퍼니 창업대전(기업가정신) 단체/개인명 케이로드넘버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업 일정 변경이 몇 차례 있었고, 결국 온라인수업으로 결정되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동영상 수업으로 학교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온라인수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여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였습니다. 밝고 명랑한 영락 친구들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섭섭하여 작년 수업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자신들 반의 담임 선생님이 박보검 닮았다는 굳은 신뢰를 보여주며 1학년 교무실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했던 녀석들~ 박보검과 많이 다르지만 박보검

이라고 믿게 했던 선생님의 실력에 내심 감탄하였습니다. 비전 찾기를 할 때 어렵지 않게 비전 찾기를 수월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기특한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겠지요.

• 예일여자중학교 •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이번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한 명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프로그램명 자기 소개서와 학교신문 만들기 단체/개인명 조재용

수업이 코로나로 중단되고 수업 일자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날짜가 넘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수업 일자만 있었어도 zoom 통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프로그램명 천연재료를 이용한 피부관리법과 화장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이시스

올해는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여 수업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습 위주 수업이라 온라인수업이 힘들어서 올해는 거의 못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의 수업을 고민하고 소그룹(6인) 장소로 체험학습의 기회로 사무실도 마련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시스가 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 은평중학교 •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이번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한 명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증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크리에이터 체험을 통한 나를 보기
단체/개인명 박태하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으로 당황했지만 학교 측의 배려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의 지원과 격려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티칭'이 아닌 '코칭'을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수업 역시 온라인 수업의 연장선으로 실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함으로써 결과물을 만드는 성취감과 각자 담당 파트를 소화해 내며 서로 협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주는 희망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추억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구들과 더 멋진 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명 우리교실 NEWS 라디오
단체/개인명 은평FM 팟캐스트교육팀(김은영)

코로나 상황의 발생으로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더니,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수업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두 차시는 화상으로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3차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4차시까지 화상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두 달 뒤인 7월이 되어서야 이들 동안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

하고, 화상으로 진행할 부분의 내용도 전달방식으로 수정하여, 강의 영상을 완성한 후 학교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구글클래스에 접속하고 업로드하고 과제를 내는 것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왕좌왕하며 첫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글 설문지로 과제를 내는 것까지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까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7월에 예정했던 대면수업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무려 화상수업 후 두 달여가 지나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첫 대면 수업을 하는 날, 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모둠 활동은 할 수 없고 개별 활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온라인 수업내용이 기억나는지 질문했는데,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난 뒤라 잘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하면서 팟캐스트 실습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명은 엄청 기다렸다고까지 얘기를 해주어 뿌듯하면서도, 짧게 만나 실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시간을 더 알차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해보는 실습에 너무나 열중하고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수업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정말 높았고, 짧게 밖에 못 만나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렇게 이들 동안의 수업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담아 전달하고 실습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직접 녹음할 원고를 써보고, 짧지만 화상으로 배웠던 스피치 트레이닝을 함께 해보고, 장비를 직접 다뤄보기도 하는 등 하나하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스피치 연습시간에 복식호흡을 따라하던 모습이며, 발성연습을 하면서 잘 안 된다고 계속 해보는 모습이며, 발음연습 문장을 보여주자마자 모두들 읽으며 재미있다고 깔깔대던 모습, 역할별 대본 읽기를 처음 해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잘 읽던 모습까지 짧은 만남이 더 아쉽게 느껴질 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었다. 마지막 시간은 조별로 팟캐스트를 녹음해보고 함께 들어 보는 시간이지만 조별 활동

을 할 수가 없어서 개별 활동으로 바뀌 진행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녹음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라디오에 출연했다는 신기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좋아했다.

처음 해보는 화상 수업부터 짧게 만났던 대면 수업까지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고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감을 들으며, 함께 만들어간 우리의 시간이 아이들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앞으로 미디어를 대하는 시각이 한 뼘쯤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모두가 노력한 결과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수업은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고 배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함께해 준 증산중학교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의뢰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다.

프로그램명 진로 JOB GO! 보드 JOB GO!
단체/개인명 송연희

구글클래스로 온라인수업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구글클래스 사용매뉴얼을 따로 보내주셔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업 영상을 비디오 파일로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의 과제물 관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제물로 출석을 체크하는 거라 학생들이 과제물을 냈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비공개 댓글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과제물을 통해 학생평가도 해야 해서 과제를 내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어려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을 대면 수업에서 보니 과제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아이들의 특성들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에서 활발히 선생님과 소통했던 학생은 대면 수업에서 내성적인 학생으로 부끄러워 발표를 못 했고, 과제물 제출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학생은 대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 시간에 과목했던 학생들의 수다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수업을 끝내며 소감발표를 온라인으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게임을 하니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낯설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대면 수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수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사로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충암중학교 •

프로그램명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단체/개인명 에코맘 협동조합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프로그램명 빈티지 가족 소품 공예
단체/개인명 박유신

2회기는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2회기는 어렵게 학생들과의 귀중한 시간을 대면 수업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 대성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자기 소개서와 학교신문 만들기
단체/개인명 조재용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 담당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으로 인해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학생들의 열정과 배우려는 자세가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프로그램명 진로탐험대-미니컴퍼니 창업대전(기업가정신)
단체/개인명 케이로드님버원

매년 참여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는 학생과 담당 선생님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학생들과 참여하는 마을 교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업입니다. 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 고마워요.



• 선일여자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자기 소개서와 학교신문 만들기
단체/개인명 조재용

2020년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코로나19로 4월에 실시하기로 한 수업은 계속 연기되다가 9월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수업은 학생들의 적은 등교일정으로 한번은 대면교육, 한번은 영상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사용한 줌을 통한 영상수업은 낯설기도 하고 AI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도 하였다.

대면수업이야 늘 해오던 수업이었기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지만 줌을 사용한 영상교육이 있는 날이면 혹시나 영상교육이 서툴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전달할까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상교육이 있는 날이면 전날에 강사들과 줌을 통해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점

점 영상교육에 대한 자심감도 커가고 줌 사용이 점점 익숙해져 이제는 줌을 이용한 영상교육이 대면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쉬워진 느낌이다.

또한, 이번 콘텐츠 수업은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지, 얼마나 강사들을 위해 사소한 점까지도 살피고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지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번 콘텐츠는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해 더욱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콘텐츠 사업은 나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AI 시대, 5G 사회에서 나는 초 인터넷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뤄간다.



프로그램명 오늘부터 나도 앱 메이커
단체/개인명 바이플러그(주)

3년째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평구의 많은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하버드 교육심리학 박사인 하워드 가드너는 앱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2020년인 지금까지 만난 학생들 모두가 앱을 단순히 활용할 줄은 알지만, 스스로 앱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구현해 보는 생각을 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은평콘텐츠연계사업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 특강으로도 강의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앱의 아이디어의 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앱을 만

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로 누구나 앱을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경험은 아이나 어른이나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이를 더 어렸을 때 경험해 본다면, 앞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앱 제작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다방면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만난 선일여고의 학생들도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본 수업을 마치고도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교육으로도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을 열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이 때문에 은평교육콘텐츠사업에서 꾸준히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를 키워주는 필요한 교육적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일정 조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원하는 횟수만큼 수업을 못 해 아쉬움이 있었다. 직업체험을 목표로 빵, 쿠키, 케이크 등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여건상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다행히 수업 횟수가 줄어서 재료비 관계로 그동안 만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케이크와 호두파이, 마카롱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식생활의 서구화

로 앞으로 빵을 먹는 수요는 늘어 날거라 생각한다. 간식과 더불어 주식으로 식빵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디저트로 다양한 케이크류와 타르트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디저트 문화가 앞으로는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빵의 문화는 미래에 더욱 많은 수요로 인해 많은 제빵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익히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익히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이다.

또한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 창업 등 제빵사의 진로는 굉장히 많고 더 많아 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 처음에는 적은 급여지만 기술이 늘어날수록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연봉자도 많다.

이번 교육콘텐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제과제빵도 학생들에게 미약하나마 적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프로그램명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 단체/개인명 협동조합 청청

학교에서 유튜브와 더불어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분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도 관심사에 적합했던 덕분인지 학생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었고,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수준의 중급 편집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PC로 가능한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기대에 맞춰주기 위해 커리큘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커리큘럼 조정으로 시간상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 아쉬웠지만, 강의 내내 항상 Smile이었던 학생들을 보면 없던 힘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일정 조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갑자기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서 수업이 취소되어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다. 나라 전체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중이니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과 나 또한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직업체험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적은 횟수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수업 횟수가 줄어서 재료비 관계로 그동안 만들어보지 못했던 과일 생크림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마카롱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가 변할수록 현재의 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사라지고 기계화에 따라 어떤 공부를 해야 본인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되나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콘텐츠의 교육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과 제빵처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수업도 좋고,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방향에 따른 인문학, 소비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결혼에 대한 교육 등 학생들이

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예일 것이다.



프로그램명 보드&스테킹 -나도 놀이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노는엄마협동조합

선정고 수업은 코로나로 인해 처음 인원보다 줄어서 9명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보드수업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모두 끼고 있어서 이야기 전달도 쉽지 않았고, 아이들도 학교에 자주 오지 않으니 같은 학년끼리도 친하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드게임을 아이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아이들이 많은 접촉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할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보드게임을 준비해가니 다음 수업부터는 아이들과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8회차 수업이 결국은 5회차로 끝나고 아이들과 마무리 인사를 못하고 수업을 마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수업을 못할 경우 좀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대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과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올바른 피부 건강 지킴이의 기초 관리법 단체/개인명 로하스협동조합

코로나19로 멈췄던 교육콘텐츠... 2020년에 처음 진행한 수업이었다. 대면수업이라 조심스러웠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한 수업이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체험 수업은 학생들을 즐겁게 했고 피부 가꾸기에 관심이 많고 피부 관리에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은 내 피부 상태를 현미경으로 보는 시간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맨 얼굴을 보여야 하는 올바른 세안법을 배워보는 시간에서 앞에서 모델이 되어 세안 체험을 하는 학생의 허락 하에 사진 촬영 후 세안 전, 세안 후 비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며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명 올바른 피부 건강 지킴이의 기초 관리법 단체/개인명 로하스협동조합

코로나19 1단계로 내려오면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체험 수업은 학생들을 즐겁게 했고, 환절기 건조해지는 피부 관리와 세안법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다. 또한 피부에 맞는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완성된 제품을 직접 손등에 발라보며 만족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세명컴퓨터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심폐소생술 및 학교안전교육 -생명을 살리는 손 단체/개인명 한국재난안전연구소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친구들을 올해로 2년째 만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실습 활동을 겸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작년에 만났다면 반가워하는 친구들과 작년에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까지 코로나로 교육 현실이 여의치 않는 요즘에 실로 반가움의 연

속이었다.

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친구들 덕에 실습 교육 진행이 수월하고 체험 교육 전달에 있어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생명의 소중함과 ‘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무게감’ 심폐소생술의 의미 나의 행동 실천이 미치는 영향까지의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학교생활을 함께 있어 우리 반에 알면 좋은 생활 안전이야기를 구성해 보며 수업을 진행을 했다. 직접 교구를 이용한 체험 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각 차시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위기 상황 판단과 상황 대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충격기사용에 대한 용어나 예시에 어울리는 상황, 정보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을 영상 활용 교육으로 이해도가 빨랐다.

함께하는 체험 활동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충격기사용 교육의 의미와 정보에 대해 많은 대화와 친구들 간에 ‘생명 살리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의미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다.

각각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반별 또는 친구들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손’ 안전한 우리 교실 만들기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전교생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본다.

프로그램명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단체/개인명 에코맘 협동조합

코로나19로 모든 오프라인 일정이 조정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동영상과 재료를 키트로 준비해서 학교에 전달하고 수업을 하게 되어 아쉬웠다.

• 송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영화 만들고 싶어? 랫츠 기릿!

단체/개인명 도움공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아이들의 영화제작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하여 대견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고 배우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신도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치유원예(내마음에 식물 들이기)

단체/개인명 생태원예사업단 푸른미래협동조합

신도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은 매번 새로움이 있었다. 다 큰 아이들 같지만 매번 터지는 리액션으로 알 수 있는 고등학생에 싱그러움으로 느꼈고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야기에 집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예쁘다.

특히 대면 수업에 학교 정원에서 각자 열매와 말린 꽃을 주워 꽃꽂이에 활용했는데 맥문동, 둥굴레의 열매도 보고 학교 정원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실 밖에서 숨도 쉬어보는 시간이라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꽃꽂이를 할 때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꽃잎을 정리하고 원하는 자리에 꽃을 꽂고 다시 꽃을 들고 자리를 잡을까 신중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은 기특했다. 집중도가 높을 때 만족도도 높아 보여 수업을 준비한 입장에서도 잘했다 하며 쓰담쓰담하게 되었다.

마지막 수업에 하바리움을 준비했는데 건조화를 이용해 보존액을 넣고 등기구에 비추니 너무 좋아하고 만족해했다. 지금이 이 빛처럼 찬란한 시간이라며 자존감 높은 모습도 보여 진행한 강사의 입장에서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번이나 수업 일자가 변경되고 마지막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지만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 은평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다양한 카페 메뉴 만들기 및 바리스타 체험 활동

단체/개인명 카페원코퍼레이션

커피 바리스타 직업 체험 활동을 주제로 기관 실습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비롯한 여러 커피 추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커피 추출 및 다양한 카페 메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음료를 만들어보며 커피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체험해보고 카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업을 운영하며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교와 방역 안전지침 지도를 잘 따라준 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 은평메디텍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단체/개인명 아미드빵

올해 은평메디텍고등학교에서 은평교육콘텐츠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리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참가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 명이 빠지고 계속 9명이 수업을 참가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은 인원수이기도 하고 조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서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에서 실습을 많이 해봐서인지 다른 과 학생들과는 전혀 다르게 관심도 많았고, 손놀림도 빠르며, 재밌게 수업에 참가했다.

빵, 머핀, 쿠키, 케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학생들과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의논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빼빼로데이지만 그래도 빼빼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려고 초콜릿 템퍼링 및 초콜릿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카롱은 많은 재료비와 수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도 학생들이 원해서 마카롱을 만들 수 있었다.

다행히 넉넉한 재료비 덕분에 2인 1조로 실습을 하고, 또 여러 명이 하던 실습을 2명이 하니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조리과라는 이유로 나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한다는 약간의 사명감이 있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니만큼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문제, 진학문제 등 고민거리가 많은 것 같았다. 그런면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현장에서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몇 명이라도 나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번 교육콘텐츠프로그램이 조리과에 재학중이지만 따로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

우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한 명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충암고등학교 •

프로그래밍 영화 만들고 싶어? 렛츠 기릿!

단체/개인명 도움공연

코로나와 고3이란 한계 때문에 방학기간으로 일정을 옮겨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업시간을 훌쩍 넘겨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수업이 끝난 후 자정이 넘어서까지 학생들의 시나리오와 그날그날 편집본을 보고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인원을 모으고 이 수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참여도도 높았고 학생들의 열정이 보태져서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를 한 편 찍기엔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효과는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울신도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Math Craft' 수학 속 공예 세상
단체/개인명 박혜림

2020년 은평교육콘텐츠 연계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히 수업 연계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보조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혼자 해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매듭 묶기를 못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수학 좋아하는 학생 손을 들어 볼까요?”라는 질문에 역시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와중에 수학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나오는 것 역시 “함수”라고 말할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실생활 수학을 많이 접하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유독 수학을 공식으로 문제 풀이로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을 시도조차 못 하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실과 시간에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또 바느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손으로 하는 조작 능력이 많이 부족함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하는 연구는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저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학 공예 수업이 되도록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직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지 교육박람회 때 어떤 선생님께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한 선생님의 말씀에 무안했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제 아이도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강사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신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및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연광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어서와 ~ 3D펜은 처음이지?
단체/개인명 박신영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많지 않아서 날짜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날짜를 맞췄지만 코로나19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전격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어 원래 6회기였으나 2회기는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펜에 신기해하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저희 수업은 수업 전 멀티탭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여분의 멀티탭을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중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빨리 하는 아이들은 여러개를 만들기도 하고 꾸미면서 3D 펜에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집중력이 길러지고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그램명 미술과학 하는 아이들
단체/개인명 에듀통합동조합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학교들의 수업이 중단되었지만, 우리 연광초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창의체험학습을 하니 너무 반갑고 즐겁다고 아이들이 무척이나 호응을 잘해주어 수업이 즐거웠습니다. 확진자 한 명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어 뿌듯합니다.

• 서울연천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기초부터 배우는 블록코딩(엔트리 또는 스크래치)
단체/개인명 김윤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수업이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학생들의 컴퓨터 시스템적인 문제나 이해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으로 일정을 미루다 보니 10월이 넘어서 버렸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코딩이라는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흥미를 끌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30분이라는 단축된 시간 안에 45분짜리 수업내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쉽고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재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이들이 엔트리 코딩은 무엇인지 어떤 재미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자기소개하는 작품 만들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친구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오픈마인드를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로 게임을 직접 간단하게 코딩해 봄으로써 코딩이 또는 게임이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주었고, 도형 그리기에서는 어려운 프렉탈까지 그려봄으로써 코딩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하여 우리가 코딩한 미로 게임으로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해봄으로써 코딩한 내용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는데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다. 횃수든 수업시간이든 시간이 짧아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맛보기만 한 것 같아 한없이 아쉽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이 참 기분 좋고 학교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니 기쁨이 배가 된다.



• 서울은평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책놀이 통하는 사회 통하는 과학
단체/개인명 김어지나

<책을 씹어먹는 아이들의 통하는 사회 통하는 과학 융합 책 놀이>

학교 수업에서 낯설고 딱딱한 사회랑 과학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그림책이라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나와 우리 마을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 되겠조. 은평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고자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1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책을 다시 선정하였고, 북 활동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스크랩북 만들기, 나무 저금통 꾸미기, 에코백에 나의 마음 지도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책과 놀이가 융합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놀랍고 창의적인 동물들의 집 짓는 방법을 똑딱똑딱 동지 짓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그림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수업을 통해 누군가는 미래에 멋진 건축가가 되기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커진 집 그림책을 읽은 학생들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과 모두가 똑같아야만 하는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도책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내 마음의 지도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조.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한 반에 27명이 되는 학생들이 어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른 개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총 12회차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한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한 반에 3번의 수업밖에 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은평초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쉬워하는 아이들과 다음을 기약하고 앞으로 책을 많이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허락되었다면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해 주신 담임 선생님들과 학습지원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과 멋진 수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시는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구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IoT 창의융합과학교실
단체/개인명 권효정

2020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활동이 많은 수업이라 친구들과의 비대면 수업이 걱정스러웠으나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더없이 크지만,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쌍방향 수업으로의 전환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IoT 창의융합 수업은 중학교에 접어들면서 잠시 잊고 있을 메이킹과 쉽게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사물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충분한 수업입니다. 교육 현장으로 스며든 비대면 수업이 저만큼 학생들에게도 즐거운 모험이었기를 희망해봅니다.

• 덕산중학교 •

프로그램명 1인 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베테라이프

우리 은평지역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에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면서 구체화하고, 또 멋진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지원하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수업이기에,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

며, 자신의 콘텐츠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수업이었습니다.

• 선일여자중학교 •

프로그램명 3D 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신윤경

작년 전환기 수업 이후 선일여중 동아리 반에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연도 수업은 코비드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혼용으로 아이들 개인의 고민 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오프라인 시간에 질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보다 모델링 능력이 향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차의 변경으로 너무 짧았던 탓에 아이들 일일이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선일여중은 네이버 카페를 사용해서 수업했고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회차로 수업시수가 줄어 프로그램 시연을 통한 교정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프로그램 사용 숙련도를 점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차의 한계로 개인 자유 모델링을 못 해봤다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애써주신 은평교육콘텐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신도중학교 •

프로그램명 기초부터 배우는 블록코딩(엔트리 또는 스크래치)
단체/개인명 김윤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4월 중순이 넘어서야 온라인이라는 세계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의 동영상 제작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동영상만으로 하는 학습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했다.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온라인 댓글만으로는 한계가 많았었다.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이 원활한 학생들은 빠른 시간내에 엔트리 블록 코딩으로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몇몇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초기엔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일이 가면서 학교 등교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궁금증도 바로 해결하고 호기심도 상승하여 즐거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 내용은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응용작품까지 만들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래서 수업내용과 동일한 작품만 만들지 않고 자신의 창의력을 더하여 재미있고 수준 높은 작품까지 만들어 공유해 주어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였다.

방역을 철저히 지키느라 친구들과 대화도 힘들었던 아이들이 안타까웠었다. 하지만 메이키메이키라는 피지컬 컴퓨팅 활동으로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 코딩한 내용과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는 4명씩 조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로 서로 가까이하지 못했던 친구들이지만 금세 친



해지고 서로 도우며 활동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었다. 그런 신나는 일들이 많아야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 미안함이 앞섰다. 내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말이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사라져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기대한다.

• 연서중학교 •

프로그램명 1인 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베테라이프

‘우리 은평지역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에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면서 구체화하고, 또 멋진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지원하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수업이기에,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콘텐츠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수업이었습니다.

• 연천중학교 •

프로그램명 천문우주교실(천체관측)
단체/개인명 동원교육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방역과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시작한 한 해였다.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역시 학생들의 등교가 불규칙하여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무려 75%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자료

준비로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가질 수 있어서 나름 보람된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오래된 자료도 많이 검토, 수정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 관측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12월은 특히 목성과 토성이 매우 가깝게 만나는 해라서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모두 취소, 축소되어 홍보 없이 개인적으로나 공원에 있는 극소수 사람들과만 감동을 공유할 수 있었다.

무한한 우주의 스케일과 신비로운 현상들의 즐거운 경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생생한 경험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는 태양의 활동 중 한 종류이며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프로그램명 3D 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신윤경

우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3년 차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의 떨리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뿌듯함과 보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을 대하는 여유도 생겼다 보니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보람되고, 수업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하고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에겐 좀 더 기회를 제공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번 연도 수업은 코비드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혼용으로 아이들 개인의 고민 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오프라인 시간에 질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보다 모델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모두 과제 제출이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고, 처음에 잘 못 하던 몇 친구들은 점점 금방 적응을 해서 결과물도 훌륭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작 프로그램과 편집프로그램을 독학하는 과정도 나름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강의 플랫폼 교육을 연천중학교 측에서 제공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시간 내에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봐주었던 오프라인 수업과 다르게 각각의 아이들이 수시로 과제를 올리고 질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강의 기간 내내 중간 중간 답변해 줘야 했고, 프로그램 시연을 통한 교정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1회차에 비해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프로그램 사용 숙련도가 성장하였으나 회차의 한계로 개인 자유 모델링을 못 해봤다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애써주신 은평교육콘텐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영락중학교 •

프로그램명 창의 STEAM 보드게임
단체/개인명 권신

코로나 사태로 수업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환기 수업까지 한 곳이라도 더 매칭해 주시려는 담당자님들과 분과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지역의 홍보와 관심으로 마을 선생님들이 마을 아이들을 키우는 '배움과 돌봄 교육공동체'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업을 마칩니다.

• 대성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음악과 함께하는 드론의 군집비행
단체/개인명 구철희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시간의 변경과 개인 방역 관련하여 시간의 소비가 많았고 드론 및 4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드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계획서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드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학습 목표이긴하지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심도있는 패턴비행, 코딩, 편대비행, 드론 촬영, 분야 등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깊이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수업 시간이 절대 부족한 듯해서 아쉬웠다. 또한 서로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기적(코로나) 상황으로나 시간의 절대 부족함을 느꼈다.



•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어서와 ~ 3D펜은 처음이지?
단체/개인명 박신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많지 않아서 날짜 맞추기가 힘들고 수업 시간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저희 수업은 수업 전 준비할 게 좀 있는데 교실이 아닌 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도 수업 전반에 걸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중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좋은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기초부터 배우는 블록코딩(엔트리 또는 스크래치)
단체/개인명 김윤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초기에 1~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수업 대상이 1학년과 2학년의 등교 주일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없어 1학년만을 대상으로 재모집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 꿈 공장은 여러 특별활동을 하는 장소여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새로 구입한 노트북엔 세팅이 덜된 상태로 학생들이 바로 이용하다 보니 계정정보를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컴퓨터 접속이 순조롭지 못했고, 20명이 이용하는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여러 명이 접속하는 경우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등 수업 시간 안에 원하는 내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오프라인 수업만 진행한 게 아니고 격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집에서 원활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 안에 구글 클래스에 접속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해 주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수업 횟수가 많아 엔트리의 기본적인 기능과 작품 제작뿐 아니라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하여 피지컬컴퓨팅 작업도 기초적인 것과 피아노 건반을 연결해서 연주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었고, 최근 추가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기능 그리고 확장 기능들까지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매 수업마다 과제를 제출하여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수업내용에 들어 있는 예제를 충실하게 만들어 제출한 학생도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기본 코드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고 퀄리티의 작품을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 대견하였다. 엔트리의 기능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쉬워 접근이 용이하지만, 실제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능만 이해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응용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이라 이해력과 응용력이 좋았다. 기초과정의 동아리 수업이었지만 엔트리의 기본 기능과 활용 그리고 최근 추가된 인공지능 기능까지 모두 섭렵하고 마스터하는 과정이었다.



• 은평고등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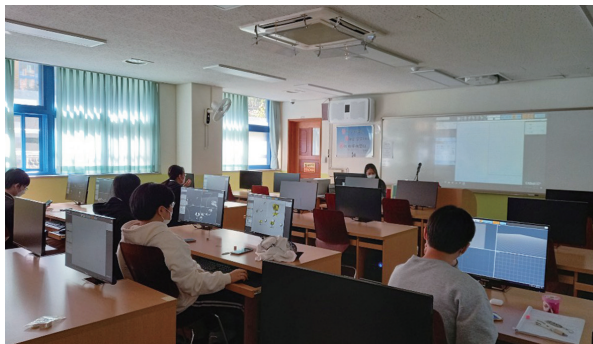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3D 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 만들기
단체/개인명 신윤경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함께 해준 은평고등학교 3D프린팅 동아리 수업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매년 바뀌었지만, 벌써 3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이번년도 수업은 코비드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혼용으로 아이들 개인의 고민 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시간이 확

보되고 오프라인 시간에 질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보다 모델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모두 과제 제출이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고, 처음에 잘 못하던 몇 친구들은 점점 금방 적응을 해서 결과물도 훌륭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작 프로그램과 편집프로그램을 독학하는 과정도 나름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은평고는 EBS플랫폼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저장할 해야 해서 다른 학교보다 편집이 어려웠지만, 또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시간 내에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봐주었던 오프라인 수업과 다르게 각각의 아이들이 수시로 과제를 올리고 질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강의 기간 내내 중간 중간 답변해줘야 했고, 프로그램 시연을 통한 교정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1회차에 비해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프로그램 사용 숙련도가 성장하였으나 회차의 한계로 개인 자유 모델링을 못 해봤다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애써주신 은평교육콘텐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면서 구체화하고, 또 멋진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지원하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수업이기에,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콘텐츠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수업이었습니다.

• 충암고등학교 •

프로그래밍 마술과학 하는 아이들

단체/개인명 에듀통합동조합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학교들의 수업이 중단되었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 곳곳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수업에 참여도 잘해주어서 기뻐했습니다.

확진자 한 명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어 뿌듯합니다

• 은평메디텍고등학교 •

프로그래밍 1인 크리에이터

단체/개인명 베테라이프

‘우리 은평지역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에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서울구현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생각이 자라는 책놀이
단체/개인명 김연정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함께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오늘은 어떤 책을 읽게 될까? 어떤 독후활동을 하게 될까?’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욱 탄탄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 서울북한산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융합프로젝트 더불어살기
단체/개인명 박현주

1학년과 2학년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모두 책을 재미있게 잘 들어주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절대로 누르면 안 돼’를 읽을 때는 아이들이 모두 한 번씩은 버튼을 눌러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이들이 모두 신나게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참여 형 책 읽기 수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 ‘나뭇잎이 달아나요’ 읽고 나뭇잎과 나뭇가지, 눈알 스티커를 이용한 꾸미기 활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아이들의 창의성에서 저도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해지는 약’을 읽고 나만의 압화 책갈피 만들기를 하였는데, 저학년 아이들이어서 압화를 다루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 생각보다 훨씬 잘 해주어서 예쁜 작품을 만들어서 각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학년 수업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만든 작품들을 교실 뒤에 배치해주셨는데, 모아놓고 보니 정말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 아트엔가드닝 -집중력향상을 위한 식물놀이
단체/개인명 인울그린

2020년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거리의 사람들도 환한 미소를 잃고 마스크에 얼굴을 가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슬픈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우울감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들과 모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시간 속에 그래도 서로를 응원하고 의료진들의 덕분에 챌린지 등 우리나라만의 위기 극복상황들은 국가의 위상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 대응하고 대처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국민성에 높은 감동과 뿌듯함마저 들었던 한해입니다. 교육의 현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선생님, 마을강사들 힘든 시간에 스스로 방안들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전면상황에 교육 키트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교육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취소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키기 위해 서로 애써 주셨습니다. 우울한 시간 속에 아이들이 비대면 원예체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힘을 받고 체험 속에서 힐링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서울서신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생각이 자라는 책놀이

단체/개인명 김연정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책 놀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제 개인적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에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람과 소속감이 커지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자라는 책 놀이’ 수업 내용이 좋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기에 학생들이 집에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후활동 재료를 차시별로 개별 포장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울어울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나답게 좋아! 남처럼 싫어!

단체/개인명 강진선

함께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닌 공감이다!

어울초등학교 1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콘텐츠프로그램 중에 저의 ‘나답게 좋아! 남처럼 싫어!’ 프로그램이 좋아서 1학년 4학급 전체수업을 의뢰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신체적 활동 및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에 재미와 활동이 있는 저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스킨십이나 신체 및

모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사항을 사전방문을 통해 1학년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공감 놀이로 함께 창의력 및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수정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 소통 및 공감, 그리고 대면 수업으로 남처럼이 아닌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음에 들뜬 마음과 책임감으로 어울초에 첫걸음을 하였습니다.

첫 시간 해반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고 “누구지?”라는 말과 머리를 가우뚱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와 ‘나처럼 좋아! 남처럼 싫어!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흥미와 집중을 위해서 그림이 있고 없어지는 마술동화를 들려주면서 본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한 이론과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PPT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나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활동지와 만들기 재료를 줬는데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 특히 만들기 활동에서 고무찰흙과 연필을 사용해 좋아하는 동물 두더지를 표현하는 아이, 다양한 색의 고무찰흙을 반죽 및 섞어서 본인의 얼굴을 표현하는 아이들, ‘만일 나라면’과 사람 꾸미기로 본인의 개성과 매력을 마음껏 표현하는 아이들한테서 순수함과 창의력에 놀랐습니다.

매 차시 집중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말과 몸짓, 활동지 및 만들기 표현하는 본 활동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발표를 서로 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에서 아이들이 기특하고 함께함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듬 활동과 스킨십 활동을 못



해서 아쉬웠지만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말과 몸짓, 만들기와 놀이 등 활동을 함으로써 남처럼이 아닌 나답게 표현으로 자존감 향상되고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서로 감상 및 칭찬, 질문과 발표할 때 공감과 경청으로 친구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 및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료 및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어울초 1학년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서울은평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나답게 좋아! 남처럼 싫어!

단체/개인명 강진선

드디어 은평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올해 3월 초 은평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나답게 좋아! 남처럼 싫어’ 수업을 각반 4차시 4반 16차시 진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심각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연기했는데 드디어 11월 11일(수)부터 진행하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사전방문하여 2학년 부장 선생님을 뵙고 코로나 거리 두기로 모듬 활동 및 스킨십이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하고 은평초 근처 아파트 입주로 각반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학생 수를 참고하여 재료 확인하고 아이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드디어 은평초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공감 놀이를 통해 함께 웃고 움직이고, 그림으로 친구랑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친구랑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랑 먹고 싶은 음식에 피자와 치킨을 그린 친구를 보면서 “나도”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여러 명 있어서 공감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팽이를 꾸미고 조립하여 서로 돌리기를 하며 회전으로 예쁜 색의 변화를 보고 작품감상과 칭찬하는 시간도 되어 혼자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도 공유했습니다.

나답게 자기표현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한 활동지에 자기표현하며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람 꾸미기 재료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에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옷차림, 머리 색깔, 특징을 그려서 대리만족하며 흥미를 갖는데 제가 견본으로 준비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잘 표현해주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사람 5명을 적는 활동지에 ‘나’라고 자신 있게 쓰는 아이, 사랑하는 엄마를 강조하기 위해 엄마 이름까지 적는 아이, 자기만의 행복 액자를 꾸미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 드리고 액자에 넣을 사진을 같이 고르겠다는 아이, 가족들이 서로 약속하여 칭찬 및 격려 한마디를 적어서 액자에 붙이라고 포스트잇을 주었는데 기대를 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답게 긍정의 힘’ 주제로 수업할 때 아이들의 이해와 생각 열기 활동으로 화가 난 나의 머릿속과 슬퍼하는 아저씨 그림이 있는 활동지를 통해 나와 타인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아이들의 생각을 참고로 하여 아이들에게 본인과 친구들에게 칭찬하는 습관, 대화 잘하는 방법,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조절을 수업 진행했는데 자기만의 생각과 실천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생활화에 실천함을 약속도 하였습니다.

긍정 메시지를 보면서 긍정의 마인드를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기 활동 시간에 칼라 종이족자에 본인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긍정 메시지를 크게 적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는데 평소에 듣고 싶은 말과 좋아하는 말을 참고하여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서 멋진 칼라 종이족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것을 소중히 다루어 잘 챙겨서 집의 원하는 곳에 걸고 싶다고 합니다. (거실, 안방, 현관 등) 부모님께 자랑도 하고 싶은 욕구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그동안의 수업을 총정리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항상 나답게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게 표현 및 생활하기를 약속하며 “사랑해요” 말과 몸짓으로 하트모양을 만들고 함께 인사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활동들, 우연히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이름을 몰라서 “나답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아이, 다량의 재료 준비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나를 복도에서 만나면 같이 가방을 들어준 아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말해준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동안 진행했던 저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집중 및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은평초 2학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감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울연천중학교 •

프로그램명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는 행복놀이!
단체/개인명 박수인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어서 모두가 당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진리에 대해 숙성된 모습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료해진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런 시기 일수록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믿어주면서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되었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학



생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감사하고 더욱더 핵심역량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락중학교 •

프로그램명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
단체/개인명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

영락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 수업 일정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밴드 채팅창과 댓글 창을 활용하여 상호 출석 체크와 인사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친구들과 대면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다른 관계형성과 상호이해, 자기 이해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함께 했다. 학교폭력과 연관 지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퀴즈도 풀어보고 오답도 서로 격려하면서 댓글 창에 서로의 이야기를 담았다.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을 해서 활동사진과 영상을 편집해 교육내용에 담았고, 1학년 친구들은 그 아쉬움을 댓글로 소통을 했다. 온라인 수업 시작 전에 별도의 퀴즈 풀이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갔다. 온라인으로 힘께 한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생활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프로그램명 인성 디자인으로 내 삶을 찾다
단체/개인명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맞춰나가는 유연한 조직의 움직임을 배우게 된 것 같다.

대면 수업으로 해야 하는 수업을 못 하게 되고, 3~40분 영상을 찍기 위해 몇 시간씩 투자해야 하고, 아침 9시에 올리면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고, 신경 쓸게 더 많다.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 대비 에너지 부분에서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힘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의 아니게 문제시되었던 많은 교육과 문화의 형태가 개혁되는 시발점이 된 것 같다. 영상을 통해 수업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름 배운 게 많다. 다른 학교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사가 많은 것을 주려 할 때 오히려 역효과,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답을 찾게 해야 하는 교육이 훨씬 반응도 만족도도 수업 효과성도 높은 것 같다.

• 진관중학교 •

프로그램명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
단체/개인명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

진관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비폭력학교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친구들과 관계형성과 상호이해, 자기 이해 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동영상은 학년별 내용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함께 비폭력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을 해서 활동 영상을 짧게 다시 보면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유를 복습도 했다. 기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과 퀴즈로 풀어보는 형식으로 영상을 구성했다. 3학년은 자기 이해 시간을 더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격유형 진단을 진행했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올해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송실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놀이하는 시민(그림책+놀이+활동)
단체/개인명 즐거운교육 연구소

작년에 이어 송실고 동아리 수업에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수업을 하게 되어 설렘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작년에 함께 했던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고 고마웠다. 작년에는 2학년 올해는 3학년

인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 작년과는 다른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같은 활동을 두 번 해도 전혀 지루함 없이 잘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첫 시간에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별명,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책등 관심 분야에 대해 소개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동아리 수업에 바라는 점등을 말하며, 우리만의 동아리 수업을 위해 협동하여 규칙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심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인 동아리 활동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요구인 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슈인, 세월호, 위안부, 기후환경, 가족의 다양성, 성 평등, 직업, 진로 등에 해당되는 그림책을 읽고 그에 관련된 사회 이슈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학년은 매주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1학년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하였고, 격주로 1, 3학년 다 같이 만나는 수업에서 활동과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대면 비대면 수업 둘 다 진행해본 결과 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큼을 알 수 있었고, 코로나로 많이 불안하고 학업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으로는 “와글와글 그림책 공작소 동아리를 하면서 그림책은 그냥 어렸을 때 보는 것이었는데 지금 봐도 재미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재밌었고 수업도 재미있고 매번 주시는 간식도 맛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맘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림책으로 마음을 풀어내는 데라 생각합니다.”

“수업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 “저에게 와글와글 그림책 공작소 동아리는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옛날에만 보던 그림책을 다시 보게 해주는 동아리였습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다.

• 신도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요리힐링

단체/개인명 루비마로

짧은 방학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요리힐링 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각자 취향대로 자율적으로 조리에 참여하였다.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고 잘 먹었다. 뒷정리도 자진해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학생이 “방학 때 원래 살 빠지는데 이번엔 이 프로그램 때문에 2킬로그램이나 찼어요” 하니 다른 학생이 “저도요”라고 한다. 어느 학생은 하루에 이 프로그램 때 먹은 점심이 다일 때도 있었다. 방학 중 결식이 쉬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학생들은 요리힐링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방학이라 학교에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음식을 만들어 싹껏 먹고 음식이 조금 남을 때에는 시설관리자분들에게 드리며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 담당 선생님도 매년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가정적인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어 보였다. 학생들도 행복하고 강사도 행복한, 이런 프로그램을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 진관고등학교 •

프로그램명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

단체/개인명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

진관고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학교 폭력의 정의 및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며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를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서로 낮섬과 코로나로 인해 자주 보지 못해 열 손가락 안에 들게 학교를 왔다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사이로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친하게 지내면 돼요!” 어쩔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에 모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진관고 친구들에게 그런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시작을 기억한다. 친해지기, 어쩔 우리들에게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사춘기라서... 고등학생이라서. 많은 이유 중에서도 우리가 ‘비폭력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행복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친구들의 성향 파악을 위해 보드 게임을 접목한 친해지기... 소통을 위해 경청과 배려를 하고,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의 시작과 끝이었다. “선생님, 우리 분명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준...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배요!”라고 이야기해준 한 친구 눈빛에서 아직 우리의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친구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 참 고맙고 행복한 수업이었다.



• 서울신사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쿵덕쿵덕 책놀 이로 신나는 '은평역사'와 '생태체험'
단체/개인명 홍남경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학교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아져 콘텐츠에 맞는 활동 보단 안전한 활동 위주로 진행한 게 가장 아쉽다.



• 서울어울초등학교 •

프로그램명 쿵덕쿵덕 책놀 이로 신나는 '은평역사'와 '생태체험'
단체/개인명 홍남경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학교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아져 콘텐츠에 맞는 활동 보단 안전한 활동 위주로 진행한 게 가장 아쉽다.





마을,
2021년을
꿈꾸다

‘은평 마을교육공동체’를 설레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은평구는 2012년부터 마을 강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과 학교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구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마을이 교육의 한 축으로 성장하여, 마을 강사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잠재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도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생각의 틀을 깨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 교육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평의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민·관·학 협력의 성공사례로 널리 인정받아, 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모델이 되고 있으며, 은평의 마을 강사들 역시 전문 강사로 성장하여 타 자치구까지 영역을 넓혀 활약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멈추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교육의 빈자리를 마을 교육이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명제처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와 도전으로 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마을 교육의 역량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을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발전하는 ‘은평 마을교육공동체’를 설레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2020년 잘 견디셨지요?

2021년도 함께 오늘과 내일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기되고 취소되는 일정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밀린 일정 속에도 대면 수업 진행하느라 교육콘텐츠 강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의 문이 닫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수시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태가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콘텐츠 수업을 지켜내느라 수없이 일정 조정을 해낸 학교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대 우려로 등교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밥 먹고 수업 듣고 1주일에 1~2번 등교수업으로 1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잘 버텨주셔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에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에 교육콘텐츠사업들은 어떻게 운영되었지?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나?’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기도 했고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수업도 많지만 등교한 많지않은 날 사이에 문화예술체육, 진로체험활동, 창의과학융합, 인성심리정서 수업들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등교일을 쪼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칸막이와 마스크 속의 표정을 확인하며 교감하려고 긴장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소한 학교들도 있지만 52개 학교에서 3만 3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지원과 학교방역을 지원한 상반기, ‘교육콘텐츠 운영이 가능할까?’가 고민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콘텐츠수업이 가능할까요?’라고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만난 교사 모두 “해야 합니다. 빠른 진도와 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수업입니다”라고 답을 하더군요.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식과 정보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에 또다른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마을교육, 우리가 8년째 지켜온 교육과정입니다.

은평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은 2012년 교육경비지원의 전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사, 지역단체, 행정 「민관학」이 모여 만든 것입니다. ‘문·예·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마을이 지원해주면 어떨까요?’라는 교사의 제안에 마을강사들을 모으고 학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행정을 지원하며 8년의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마을강사는 40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00여명의 강사들이 문·예·체를 넘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 교육콘텐츠사업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마을연계 교육과정, 더불어교실 등으로 변화발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콘텐츠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학교의 문이 닫히고 등교수업은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대기 또 대기하며 진행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던 2020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성인의 수준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접근성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을 갖고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접근성보다는 제공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중요 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유일한 친구가 손바닥만한 화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과 완전히 다른 ‘코로나 세대’입니다. 일상적 대화와 소통, 협력이 낮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또는 동성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기 방어력 향상 교육, 코로나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해석하고 준비해가는 ‘기후위기’ 배움의 현장 등이 필요한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져 분리된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해진 교육이 삶의 교육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한명 한명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교육과정 ‘마을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명확하게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니 청소년들과 함께 서로 배우면서 해야합니다.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호배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새롭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며 교육내용을 만들어가는 관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습득합니다. 교육콘텐츠가 삶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삶의 전환시기,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전환기 교육,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 방어의 주체가 되고, 서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하는 소규모대면 마을배움터사업,

온라인 수업으로 벌어지고있는 교육환경 격차와 기본 학습 지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을이 배움과 실천의 현장이 되는 것, 이것이 미래교육입니다.

교육의 주체로 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청소년들과 할 일입니다.

학교교육의 변화는 마을교육 준비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 형태의 변화, 마을에서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돌보는 것, 마을교육(방과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진짜 한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마을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꿈꾸며 함께 8년을, 그 시간들을 지켜온 것이지요?

2021년에는 든든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부족한 점은 듣고 만들어가며 보완하겠습니다.

마을강사님들의, 교사분들의, 만나는 어른이 세상의 전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오늘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미경

• 2021.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안내 •

사업 목적

마을 교육 자원 연계를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배움과 활동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 **사업기간** 2021. 3. 2. ~ 12. 31.
- **지원대상** 관내 초·중등·특수학교 67개교 및 유치원
- **운영방법**
 - ① 공모를 통해 지역 사회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선정
 - ② 학교 신청을 통해 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연계
 - ③ 프로그램은 학교-마을강사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 후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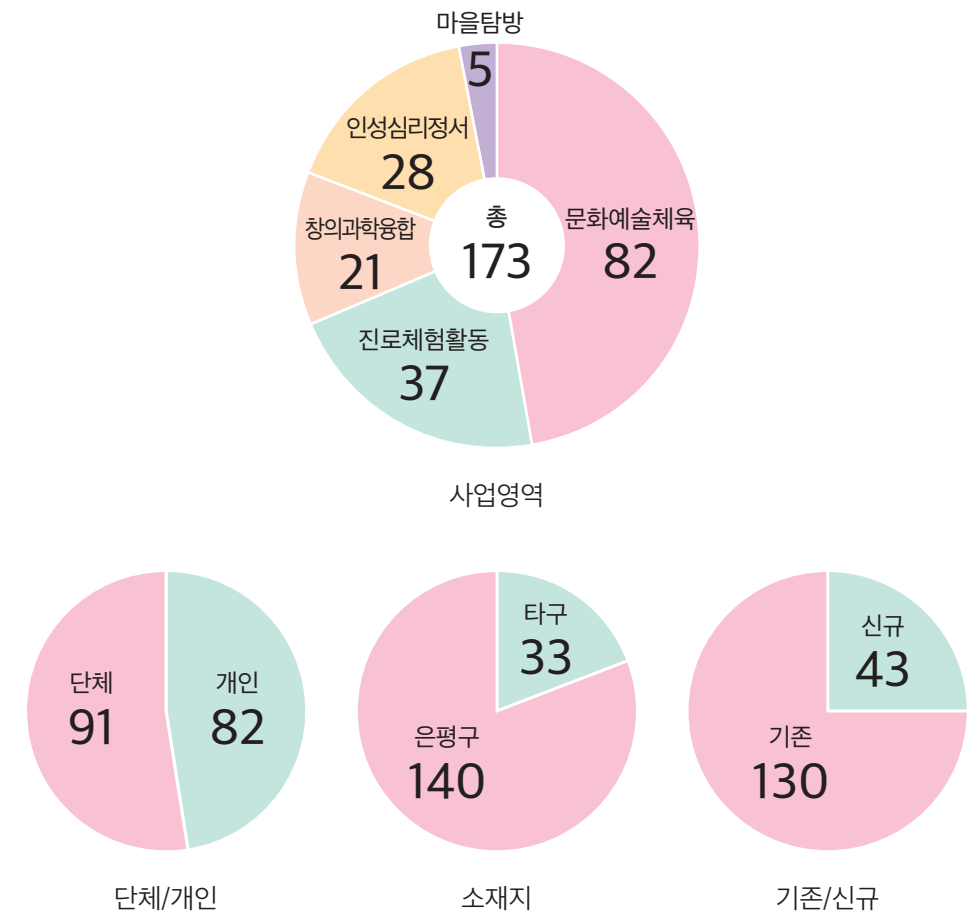
사업기준

구분	내용
사업 분야	문화예술체육 / 진로체험활동 / 창의과학융합 / 인성심리정서 / 마을탐방
수업시간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 45분 / 고등학교 50분 동일학생 대상 1회기 최대 2교시 수업가능 (단, 부득이하게 3교시 이상 연속 수업시 사전 협의 필요)
강사비	주강사 1교시 40,000원 / 보조강사 1교시 20,000원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60%까지 편성 가능 -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은 단체/개인의 자부담으로 구입 (보드게임, 책, 요가매트 등 구입 불가) -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비는 예산에 포함될 수 없음 (시설 개보수 비용 등) - 간식비(사탕 등), 배송비 지원 불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및 전환 가능, 영상으로 진행한 수업 회기 인정 *학교-마을 강사 온라인 수업 매뉴얼 별도 제공 예정
학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선정 및 조율 후 학교 신청서 제출 *2021년 학교 교육 계획 수립시 분야 제한 없이 선택 가능 (교과과정 연계, 방과 후 수업, 동아리, 자유학기(년)제, 전환기 등) - 수업 확인 및 출석부 작성 - 모니터링

사업 추진 일정



2021.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최종 173개 프로그램 선정





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50
(롯데몰 은평점 앞 승객대기동 1)

홈페이지 epafterschool.com

이 메 일 epcon0222@naver.com

대표번호 02-351-3099

팩스번호 02-305-1199